27일 Market Index
코스피 5638.34 (+168.87)
코스닥 743.83 (+16.62)
금리(국고채 3년) 3.758 (-0.031)
환율(원-달러) 1325.15 (+2.0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JY, 최대 실적에도 투자·책임경영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4주년, 기념행사 없이 통상적 내부 경영현안 챙겨
내달 정기인사·조직개편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취임 4주년'에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별도의 기념행사나 메시지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취임 4주년에도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경영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거나 별도의 경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만큼 올해도 대외 행보보다는 내부 경영 현안과 내년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속에서도 기술 투자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메모리 업황 회복이 맞물리면서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올해 3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 회장은 미래를 겨냥한 투자도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 등 AI 시대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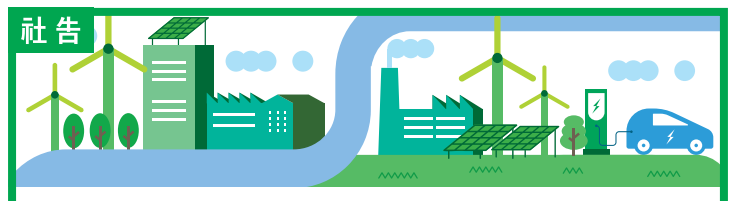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로봇과 전장,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인수합병(M&A)과 신규 투자 역시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꼽힌다.

다만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DS)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사이에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를 통해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인사와 투자 전략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취임 4주년을 맞은 이 회장이 실적 반등을 넘어 AI 시대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 삼성'의 결속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고리원전 3·4호기 운전 10년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왼쪽 두번째)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맨왼쪽)는 2035년 8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사진은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앞서 고리 1호기(맨 오른쪽)는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해 6월 해체가 결정됐고, 2호기(오른쪽 두번째)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승인돼 2033년 4월8일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실적 호조 삼전닉스, '120조 보따리' 푼다

SK, 오늘 3분기 실적발표
영업익 70조 웃돌 것 예상
삼성, 내일 콘퍼런스콜 진행
실적성장… 80조 환원 추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가 총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오는 28일과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콘퍼런스콜을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7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가 각각 80조원과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4~2026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을 110조원으로 가정하면 현금배당 70조원과 자사주 소각 40조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3분기 기준 확정된 현금배당 30조원을 제외하면 추가 환원 여력은 8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7~2029년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KB증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준이 유지될 경우 환원 규모가 기존 140조원에서 약 60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소각 목적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가 2025~2027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에 따라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특별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본 키옥시아 지분 매각 대금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앤트로픽 IPO 소식에 '코스피 훈풍'

코스피 3.09% 오른 5638.34
하이닉스 5%, 삼전 4%대 반등

코스피가 5630선대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른 5638.34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도 발동됐다. 해 코스피 시장의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이날까지 각각 26회, 27회 발동됐다.

SK하이닉스는 5.18%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4.23% 올랐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반등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뉴욕증시는 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소식 등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약 0.8%, S&P500지수는 약 0.7% 올랐고, 엔비디아는 2.4% 상승했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IPO로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1000억달러(약 133조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 증시 데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스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한 초기 투자자다. 투자 당시 약 2%였던 지분율은 이후 앤스로픽이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면서 0.3% 안팎으로 희석됐지만, SK텔레콤은 최근 앤스로픽의 시리즈H 투자에도 추가로 참여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앤트로픽 상장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을 늘려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국방부, 국방장관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신뢰강조 취지' 수습 /사진 뉴시스

▲ 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수사 지속… 고발인 "이유 밝혀야"

▲ 정청래 "비자 지연, 美 당국에 유감…정부 공격할 문제는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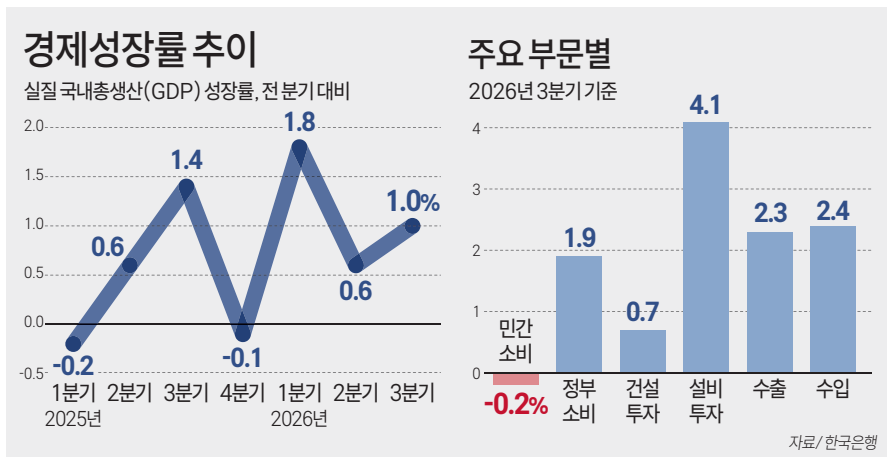
▲ 윤상현 "오세훈과 만나 보수 구심점 역할 강조…계파 초월 리더쉽 당부"

▲ 홍준표, 정계 떠나 변호사로 복귀…'구속위기' 측근 변론 나서

▲박정하 "국힘 대다수가 反장동혁·非한동훈… 오세훈으로 모일 것"

3분기 GDP 1% 성장… 한은 "4분기부터 소비 회복 될 것"

성장률 반등에도 민간소비 소폭 감소
전분기比 실질 국내총소득 3.4%↑
원화 강세·국제 유가 등 변수 작용



3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지만, 한국은행은 차량 인도 지연의 영향 완화와 가계소득 개선에 힘입어 4분기부터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성과급 지급을 회복의 지원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성장률 반등과 가계의 소비 회복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업·주식거래 감소가 소비에 남긴 충격

한은은 자동차업체 파업과 증시 조정에 따른 주식거래 감소가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국장은 "두 가지 특이요인이 없었다면 민간소비는 0.2% 감소가 아니라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비에는 차량 인도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완성차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면서 해당 분기의 승용차 소비가 줄었다. 인도가 뒤로 밀린 부분은 이후 소비로 반영될 수 있어, 이번 감소를 구매 수요 위축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서비스 소비도 주식거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7월 이후 증시 조정으로 거래가 줄면서 증권거래 수수료 등 가계가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축소됐다. 주식을 사고파는 금액 자체가 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소비에 반영되는 구조다.

증시 불안은 가계의 경기 인식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김세용 한은 경제심리조사팀 과장은 소비심리 하락 배경에 대해 "국내 증시 조정, 중동지역 충돌 지속 등으로 비관적 경기전망이 다소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배당·성과급이 가계소득으로

소비 회복을 판단하려면 국내 전체의 구매력과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도 구분해야 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보다 3.4% 늘었다. 다만 GDI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영한 국내 전체의 실질구매력 지표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성과급·배당 등 소득의 전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올해 4분기 현금배당과 내년 1분기 성과급 지급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정부 이전지출 확대도 소비 지원 요인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회복에는 차량 인도 지연의 영향이 완화되는지도 중요하다. 이 국장은 10월 들어 승용차 소비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서비스 소비의 회복은 증시 조정이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거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완화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국제유가 등 대외 여건이 변수다. 한은은 유가가 안정된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완화 효과가 가계 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감소 요인의 해소와 소득 개선이 가계 전반의 지출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회복의 관건이다. 이 국장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부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고리원전 3·4호기 재가동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안 최종 의결
한수원, 3개월 뒤 상업운전 재개 전망

설계수명이 만료돼 멈춰 서 있던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향후 설비 개선과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재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제17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표결 결과 박종운·진재용 위원 등 2명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하면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을 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1984년과 1985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 3·4호기(1025MWe급)의 운전 수명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연장된다.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각각 2024년 9월 28일과 2025년 8월 6일 운전이 중단됐던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이번 승인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가동이 가능해졌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법령 기준 적합성, ▲발전소 운전 기간 변경 및 기기 교체 등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용의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며,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계속운전 허가안이 확정됨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른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재가동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허가 후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임금근로자 절반, 월 300만원 못 벌어

데이터처, 5명 중 1명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월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에 대한 임금은 2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별로 월 100만 원 미만이 219만7000명으로 9.8%, 100만~200만 원 미만이 207만8000명으로 9.3%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649만 명으로 29.0%였다. 이를 합치면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총 1076만 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200만 원 미만은 427만5000명으로 19.1%에 달했다.

월 300만~400만 원은 510만 명으로 22.8%, 400만~500만 원은 257만6000명으로 비중 11.5%를 기록했다. 500만 원 이상은 393만 1000명으로 17.6%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가 흔드는 글로벌 금융질서… 성장 기회 속 불안정성 경고

재경부·KDI, G20 금융안정 회의
세계 석학들 AI 확산 양면성 진단
AI 거래 증가에 시장 변동성 우려
공급망 재편·중앙은행 통제력 약화
금융위험 대응 위한 국제 공조 촉구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인공지능(AI)의 활용 확대와 공급망 변화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석학들은 AI를 비롯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성장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재정경제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6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허장 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층적인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스럽티브 테크놀러지(와해성 기술)'의 확산은 성장의 기회이자 불확실성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AI 사용은 의사결정 동조화와 보안 위협을 증대하고 있으며, 가격 조정이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브마커스 브루노마이어 프린스턴 대학교 벤드하임 금융센터 소장은 AI트레이더의 시장 진입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AI의 처리속도와 업무 효율성이 인간의 처리력을 앞지를 것이며, AI의 비대칭적 이해력과 설명 불가능성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시장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트레이더들은 인간보다 시장 이해도가 높지만, 우리는 AI트레이더의 사고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기존 시장 거래자들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매매의 근거로 활용했지만, 기존의 정보들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돼가고 있다. 이해의 감소는 유동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가격 변동성의 확대와 리스크 노출액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앙은행들은 시장 참여들보다 광범위한 인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정책을 결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AI에이전트는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AI가 중앙은행을 이기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AI는 우리보다 시장을 훨씬 쉽게 이해한다. 시장 취약성은 확대하고, 기존 전략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AI 간의 담합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규칙이 필요하다. 시장 규칙이 복잡할수록 AI가 인간에 대한 이점을 갖기 쉽다. 세밀하지 않고 단호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우라 알파로 미주개발은행(I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생산·판매가 세계 각국으로 분절화하는 공급망의 재편 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본사와 생산, 판매가 각각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들은 효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들은 원가, 관세, 유통, 생산성 등을 고려해 끊임없이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처를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발생하면 무역의 형태나 비중도 빠르게 바뀐다. 과거 미국의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9%까지 감소했다"라며 "극적인 변화에도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만큼 전체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변화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확실성 국면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자본력이 탄탄한 은행들은 변화를 지원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자금을 제공했고, 기업들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에 성공했다"라며 "은행 대출과 시장 지식은 기업의 공급업체 발굴 및 광범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시대의 금융안정 혁신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위협과 충격을 금융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中 하이얼, 태국 세탁기 공장 착공
LG·삼성과 해외시장 '경쟁 예고'

하이얼, LG 생산거점 라용에 진출
연산 300만대·최대 70% 수출 계획

LG전자, 중동·호주 수출시장 겹쳐
삼성전자, 촌부리에 생산기지 운영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LG전자의 주요 해외 가전 생산거점인 태국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 건설에 착수하면서 중동과 호주 등 수출시장에서 한·중 업체 간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얼은 전날 태국 라용(Rayong) WHA ESIE 5 산업단지에서 세탁기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신공장은 하이얼의 최대 해외 세탁기 스마트공장으로, 전체 계획 생산능력은 연간 300만대다.

하이얼은 우선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해 연간 100만대 규모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탁통 3개를 결합해 의류를 종류별로 분리 세탁할 수 있는 '멀티워시(MultiWash)'와 'X시리즈' 등 고급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신공장 생산능력의 60~70%는 수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수출 대상은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동 등으로, 이 가운데 중동과 호주는 LG전자가 태국 생산거점을 통해 가전을 공급하는 시장과 겹친다.

특히 LG전자는 하이얼 신공장이 들어서는 라용 지역에서 대규모 가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태국법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용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과 중동,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해외시장에 수출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590만대를 웃돌며 LG전자의 글로벌 생산거점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도 태국 촌부리(Chonburi)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해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태국 투자청(BOI)이 올해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전체 가전 생산능력은 연간 1500만대 규모로, 생산 제품을 세계 137개국에 수출한다.

양사는 태국 내수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가정용 세탁가전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브랜드 점유율은 각각 24%, 20%로 집계됐다.

중동에서도 한국 업체들과 하이얼은 세탁가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가정용 세탁가전 시장에서 LG전자 사우디법인의 판매량 점유율은 26%를 차지한다. 하이얼 제품을 취급하는 알자브르트레이딩은 12%, 삼성전자와 애드미럴 제품을 취급하는 유나이티드 마트불리그룹은 18%를 차지했다.

다만 해당 점유율은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포함한 가정용 세탁가전 전체 시장 기준이다. 하이얼의 태국 신공장은 착공 단계로, 향후 중동 시장에 공급할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수요는 폭증, 송전망은 한계… 전력 인프라 대수술 '시급'

⑧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는 전기가 닿지 않는다. 전력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 바다 위를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유토이미지

◆ 2038년까지 송전선로 2만5000㎞ 추가

한국전력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국가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약 72조8000억원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지난 16일 한 세미나에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상 2038년까지 송전선로 약 2만5000㎞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약 3만6000㎞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변전소도 939개에서 1297개로 늘려야 한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전력망의 상당 부분을 앞으로 10여 년 안에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곽 처장은 송전선로가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통상 9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345kV 장거리 가공송전망은 입지 선정·인허가·설계 등 사전절차에 약 5년, 시공에 약 4년이 걸린다. 단거리 지중송전망의 경우는 사전절차 약 1년, 시공 약 3년으로 실제 공기가 4년 안팎이다. 주민 갈등이 집중되는 철탑 구간이 길수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2038년까지 송전선로 약 2.5만㎞
15년간 72조8000억 투자 필요

용인·호남산단 전력 공급 차질 우려
2028년 내 사전절차 마치면 적기 준공

◆ 반도체 산단 적기 공급, 시각차 팽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단은 가동 시점부터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성패가 전력 같은 기반 인프라의 적기 확보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적기 공급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준공해야 할 345kV 송전망 사업의 70% 이상이 아직 착공하지 못했고, 공사기간이 통상 2~4년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호남 산단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이 나온다. 2027년 준공 목표인 동서울-신용인, 동서울-신성남 지중송전망 복도체화 사업의 경우는 아직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30년 내 준공이 목표인 사업 가운데 현재 사업준비 단계인 14건은 모두 단거리 지중송전망 사업이어서, 사전절차를 2027~2028년에 마치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인 1단계 공급선로는 산단 인근 10㎞ 이내의 단거리 선로라 2030년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호남권 산단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여 적기 준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서울-신용인 등 2027년 준공 사업은 이미 지어진 지중 전력구에 회선만 추가하는 공사로 단기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요 27GW 상향, 재원·인력은 '깜깜'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요 재전망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목표수요를 당초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올렸다. 기준수요 기준으로 26.6GW, 상향수요 기준으로 26.8GW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반도체는 기업 투자계획상 약 40GW 중 36.8GW만, 데이터센터는 20.8GW 중 1단계 10.8GW만 우선 반영했고 나머지는 차기 전기본에서 검토한다. 이를 합치면 송전망 소요는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수요를 올린 만큼 송전망 투자 계획이 따라가고 있느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2024~2038년 15년간 72조8000억원 규모로, 메가프로젝트 반영 전 기준이다.

재원 대책은 전기판매수익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사채·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채 5배 한도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데, 15년 투자 중 55조 7000억원(76.5%)은 그 이후에 집행되는 셈이다. 변전소 운영인력은 현원 586명에서 2038년 1054명으로 468명, 80% 늘려야 한다.

전력 수요는 늘었으나 한전의 투자계획 등 전력망 확충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체 윤곽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송변전 투자 규모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인력 수급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국내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40년 목표 수요 27GW 늘어
내년 이후 투자 재원 대책 불투명

전력망 건설 민간 참여 허용 논의
계통 운영 안정성 담보가 '쟁점'

재생에너지, 기존 망 촘촘히 활용
장주기 ESS 설치로 출력제어 완화

◆ 민간 개방 논의 본격화… 주민 수용성 강화도 필요

한전 혼자 감당하기엔 투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사채 발행 특례가 끝나는 2027년 이후 재원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논의는 더 급해졌다.

쟁점은 공공성이다. 송전망은 국가 기간망인 만큼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계통 운영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중요하다. 수익성이 낮은 구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건설 이후 운영·유지보수 책임, 투자 회수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민간 개방이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 반발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기존 선로를 활용해 신규 송전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 지역 지중화를 확대하며, 선로 근접·밀집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높인다.

◆ 재생에너지 간헐성, 기존 망 활용과 저장으로 대응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출렁이는 간헐성 문제가 커진다. 발전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남는 전기를 버려야 하고, 반대로 발전이 줄면 수급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새 망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망을 촘촘히 써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확보된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접속을 늘리는 유연접속으로 호남권에서만 약 2.6GW의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새 요금제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수요를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로 유도해 남는 전력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충전 시간대를 조절하면 전기차가 사실상 이동식 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부하 변화에 대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준수할 계통연계 기술기준(그리드 코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더 나은 금융
더 넓은 가능성

새로운 금융의 길에 도전하고
세계로 무대를 넓혀가는 이유

고객님이 더 쉽고 편하게
폭넓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증권
인도네시아
카드
미국
베트남
은행
일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미결론… 조희대 국정조사는 강행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디지털법과 같이시행 의견나와
과세시작 60일 남아 빠르게 결정"
내달 5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의혹 철저규명, 의구심 해소해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 내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기본자산법이 제정이 된 후 같이 시행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작까지) 60일 정도 남았다.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본법 체계를 먼저 갖추고 과세를 시행해야 하고,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과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정확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의 선후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 이후에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본 시점에서 과세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과세했을 때 세무 행정상 무리 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냐고 짚어봤는데, 가상자산이 신종 유형이 발생하고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사전 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과세를) 할 수는 있지만 더 완벽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없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한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은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규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도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11월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비약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내년 소방예산 확대, 노후장비 바꿀 것"

장동혁 국힘 대표-소방공무원 대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 정책제안 자료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소방관들의 생명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후 장비부터 확실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국가가 (소방) 재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핑퐁을 벌이는 동안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가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과 관련해 언급한 '재정 빨대' 표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방 재정 관련해 '빨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있다. 소방관을 위한 예산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소방관의 희생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측은 처우 개선 과제로 ▲순직 소방공무원 별도 훈장 체계 신설 ▲국가 재정 책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방재정 확보 ▲국립묘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순직 소방공무원·유가족 예우 강화 ▲국립소방병원 복합의료단지 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11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중립과 무관"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야권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임명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 의무로서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내릴 지시를 하거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도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오늘 민주당 중진과 靑 만찬

송영길·김태년·우원식 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나 4선 이상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6선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5선인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과 만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하락세를 탄 당청 지지율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5선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90분간 오찬을 가졌다. 오찬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우 전 의장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의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선 '당내 갈등 때문에 국정 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함께한 4선 이상 만찬 자리에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퇴직연금 전담관리, 독립적 주체 필요"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안호영 의원, 고용장관에 질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퇴직한 이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공단처럼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는지 확인하고, 이직할 때 적립금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익률도 높이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담으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는데, 관리기구가 있다. 퇴직연금도 현재 약 500조원이고 앞으로 1000조원이 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도 높이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기관의 담당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이 개인 근로자가 금융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무 적립이 안 되고 기금화가 되지 않아서 (적립금) 규모가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퇴직연금 10년 환산 수익률이 2.64%라고 한다. 관련해서 수수료를 보니까 2조1362억원이어서 상당히 높다"며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도 든든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나"라고 김영훈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수수료로) 금융사만 좋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0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8년 연속 1위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에몬스

2026 KS-QEI

에몬스, 한국품질만족지수

15년 연속 1위

2026 '가정용가구' 부문 1위 수상



약 7만 5천여 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5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Emons 에몬스

에몬스X전도연 18년 동행
특별 SALE 이벤트

재개발로 월세 끊긴 집주인 지원… LH, 제도 구체화 나서

'임대료 손실 지원' 기준 마련
대상자·지원금 규모 등 검토 중
지원규모 따라 전체 사업비 변동
소유주들 분담금에 영향 미칠 듯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2 일대에 '이수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월세 수입이 끊기는 소유주를 위한 임대료 손실 지원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일부 사업지가 이미 보상·이주를 넘어 철거 단계까지 진척된 가운데, 법적 근거만 마련돼 있던 임대료 손실 지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데다 지원금이 사업비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소유주 간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임대료 손실 지원 대상과 금액 산정 방식, 지급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마련을 마무리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노후 주거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주 과정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 소유주의 월세 수입도 중단될 수 있다.

임대료 손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024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사업 추진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손실액을 얼마까지 인정할지, 언제 지급할지 등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LH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자가 주민 신청 내용을 검증하고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결정한 뒤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사업지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 소유주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일부에 직접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소유주도 있다. 반면 별도의 임대수익 없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도 있어 LH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검토 중이다.

지원금이 별도 외부 재원이 아닌 해당 사업지의 사업비에 반영된다는 점도 변수다. 지원 규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면 소유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료 손실 지원이 임대수익이 중단되는 소유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임대수익이 없는 자가 거주 소유주에게는 사업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공통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지원 여부와 세부 내용은 각 사업지의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주민협의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47곳, 약 8만5000가구가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31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10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이 보상을 마쳤으며, 방학역은 지난 9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철거에 착수했다. 사업이 실제 보상·이주를 넘어 철거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임대료 손실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사업지에서도 임대수익 중단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초기 후보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의 일부 소유주들은 이주 과정에서 월세 수입이 끊기고 금융비용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며 도봉구청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쌍문역 서측은 지난 23일부터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손실보상 협의는 토지·건축물의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 사업 추진으로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와는 별개다.

LH 관계자는 "아직 임대료 손실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어서 쌍문역 서측에 실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신한금융, 누적 당기순익 5조… 12.7% 증가

3분기 당기순익 1.6조, 12.9% 감소
누적 이자이익 전년비 7.9% 증가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5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비용 효율화와 안정적인 대손비용 관리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신한금융은 총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며 주주환원 확대에도 나섰다.

27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조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다만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8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9% 감소했다. 증권 거래대금 감소와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축소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9조3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자산성장과 순이자마진(NIM) 개선 효과가 이어진 결과다. 3분기 이자이익은 3조190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 늘었다.

다만 분기 기준 NIM은 소폭 하락했다. 그룹 NIM은 1.9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고, 신한은행 NIM은 1.58%로 0.03%p 낮아졌다.

누적 비이자이익은 3조4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증권수탁수수료 등 수수료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790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5% 급감했다. 증권수탁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비은행 부문의 누적 순이익은 1조8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 증권 부문의 실적 개선과 카드·자산운용 부문의 이익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3분기 비은행 부문 순이익은 475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7% 감소했다.

비용 관리와 자산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3분기 누적 판매관리비는 4조80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7.6%를 기록했다.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43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으며 대손비용률은 0.42%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의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62%로 전분기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99%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는 3분기 주당 배당금 740원을 결의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올해 4분기, 나머지 2500억원은 내년 1월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총주주환원 예정 규모는 현금배당 1조4000억원과 자사주 취득·소각 1조6000억원을 합쳐 약 3조원에 달한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월 말 기준 11.9%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당초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ROE 10% 목표를 올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익 1832억… 224%↑

"매출 줄었지만 내실경영 성과"

대우건설은 27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 8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건축사업부문 1조3001억원 ▲토목사업부문 316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87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91억원이다.

누계 기준으로도 3분기 매출액은 5조 8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7.9% 감소했다.

반면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누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6711억원이다. 누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1.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가 줄어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내실 경영 성과로 누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누계 신규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12조 4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3분기에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M5블록(8181억원)를 비롯해 ▲신이문역세권 재개발(5292억원) ▲서울 천호A1-1재개발(3720억원) ▲서울 청파1구역 재개발(3556억원) 등 국내 건축사업들이 실적을 견인했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4조 8550억원이다.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8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수주잔고와 비교하면 8.4% 늘어 수주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우건설은 건설시장 불황 속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초고액자산가 프리미엄 서비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맞손

하나은행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손잡고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26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을 운영하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와 초고액자산가 대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중심의 기존 서비스에서 벗어나 미식, 문화·예술, 웰니스 등 비금융 분야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패밀리오피스의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과 반얀트리 서울의 호텔·다이닝·웰니스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 전용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프라이빗 세미나 개최, 콘텐츠 공동 기획, 양사 고객 네트워크 활성화, 가족 맞춤형 제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특히 기존 개인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전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문 단위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객과 가족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최적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종합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은정 하나은행 본부장(오른쪽)과 김병윤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푸본현대생명, 보장성보험 신계약 26%↑

7월 말 기준 가입금액 8860억 기록

푸본현대생명은 올 7월 말 기준 개인 보장성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이 8860억원으로, 전년 동기(7013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6961억원에서 한 달 만에 약 1900억원 늘어나 보장성보험 신계약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보장성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2024년 6438억원, 2025년 7013억원, 올해 886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푸본현대생명은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판매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보험 본업의 수익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해 신계약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있는 보장성보험 신계약 확대를 통해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K-디스플레이, 실적 적신호… '고부가 제품·원가 경쟁력' 대응

3분기 매출·영업익 큰 폭 감소
4분기 OLED 출하량 증가 예상
완제품 수요 둔화 등 수익 변수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출하 확대에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양사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4분기 OLED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 수요 둔화와 패널 가격 인하 압력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스마트폰·노트북 제조사의 부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다. 완제품 업체들이 늘어난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 패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6조2770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42% 감소한 수치다. 전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고가 제품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됐다. OLED 매출 비중은 67%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29일 확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이지만 올해는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을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비중이 높은 데다 지난 7월부터 8.6세대 IT용 OLED 생산에 나서면서 주요 고객사의 수요와 신규 생산라인의 초기 비용 부담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양사의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폴더블폰용 OLED 출하량은 9135만장으로 전 분기보다 7.8%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2305만장으로 51.1% 늘었다.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모바일 OLED 출하량은 연중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폴더블 OLED 시장 확대도 삼성디스플레이에 기회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용 AMOLED 패널 출하량이 2900만장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8과 애플의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에 패널을 공급하면서 올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6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OLED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패널 출하 면적이 전 분기보다 약 10% 증가하고 면적당 평균 판매가격은 한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니터용 OLED 공급을 늘리는 한편 차세대 패터닝 기술인 '플립(FLiPP)'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투자 규모와 양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는 IT·차량용 OLED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유비리서치는 중대형 OLED 시장 매출이 올해 100억1000만달러에서 2030년 151억50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니터용 OLED 매출은 같은 기간 15억2000만달러에서 46억9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OLED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변수"라며 "패널 가격 협상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여부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이노텍, 3분기 매출 신기록… 6조 돌파

반도체 기판 등 모든사업 매출 증대
환율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감소


LG이노텍 마곡 본사 전경. /LG이노텍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수요에 힘입어 3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6조원을 돌파했으나 환율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절반 넘게 줄었다.

27일 LG이노텍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3671억원, 영업이익은 9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3.4%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1.4%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5%로 전 분기 4.4%보다 2.9%포인트(p) 하락했다.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이 시작되며 모바일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됐고, 고부가 반도체 기판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원재료 매입 시점과 제품 양산·출하 시점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앞서 증권가에서도 상반기 높은 환율에서 확보한 재고와 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차가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업별로 보면 광학솔루션사업 매출은 5조40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에 따른 모바일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와 북미 고객사향 차량용 카메라 공급 증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광학솔루션은 전체 매출의 약 84.9%를 차지했다. LG이노텍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공정 자동화와 지능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핵심 부품 내재화와 글로벌 생산지 이원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은 48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다. 무선주파수 시스템 인 패키지(RF-SiP)와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등 반도체 기판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의 PC 중앙처리장치(CPU)용 제품 공급도 확대됐다.

LG이노텍은 FC-BGA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국내외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PC CPU용 제품 양산에 이어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서버에 쓰이는 고다층·대면적 기판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달 열린 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 'KPCA 쇼 2026'에서 AI 가속기용 대면적 FC-BGA를 처음 공개했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9356억원, 영업이익은 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94% 증가했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 매출은 48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차량용 통신 모듈과 조명 등 주요 제품군이 성장하고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 디지털키 등 신사업 매출도 확대됐다.

이에 LG이노텍은 차량 통신·조명 등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차량용 AP 모듈과 디지털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에너직스, 글로벌 ESS 사업 맞손

2GWh 규모 ESS 공급 목표


아사 레빈저 에너직스 최고경영자(CEO)(왼쪽)와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전무(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ESS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이어 유럽에서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에너직스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발전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에너직스와 유럽·북미 ESS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Non-binding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24개월 내 유럽 약 1.5GWh, 북미 약 0.5GWh 등 총 2GWh 규모의 ESS 공급을 목표로 협력한다. 유럽·미국 법인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총 4.5GWh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사는 에너직스가 리투아니아에서 추진 중인 요나바(Jonav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협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약 320MWh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복합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이며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에너직스의 폴란드 노베 차르노보(Nowe Czarnowo) ESS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유럽·북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급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전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ESS 사업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獨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 수주

네덜란드 법인과 1150억 규모 계약

대한전선이 독일에서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유럽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네덜란드 법인이 독일에서 38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을 턴키(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네덜란드 법인이 현지 설계와 시공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대한전선 본사가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핵심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전선 본사는 이날 네덜란드 법인과 약 1150억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설계와 시공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 금액은 1150억원을 웃돈다. 발주처와 전체 계약 규모는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독일 지중 교류 전력망의 최고 전압인 380kV급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앞서 2023년 1월에도 독일에서 같은 전압의 전력망 구축 사업 2건을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올해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 유럽에서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응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현지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초고압 전력망 사업에서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도 신규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성월렛 머니' 해외결제 서비스 확대

삼성전자·텐센트·우리은행 업무협약

삼성전자가 텐센트·우리은행과 손잡고 '삼성월렛 머니'의 해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중국 선전에 위치한 텐센트 본사에서 텐센트·우리은행과 '삼성월렛 머니' 해외 결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는 삼성전자가 우리은행과 협력해 제공하는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삼성월렛 앱에서 충전과 결제를 이용하고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 텐센트 금융기술부문 다니엘 홍 부사장,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3사는 중국 QR 결제 서비스 출시와 해외 결제 편의성 제고, 디지털 결제 분야 중장기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삼성월렛 사용자는 중국 전역의 위챗페이(WeChat Pay) 가맹점에서 '삼성월렛 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3사는 내년 1분기 중국 내 QR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일렉트릭, 빅테크 주문 확대… 배전기기 생산 늘린다

3분기 영업익 2845억·이익률 24%
북미 빅테크 통합 공급계약 증가
장기계약 내 배전기기 비중 절반
청주 배전캠퍼스에 1980억 투입
연매출 2500억 증대 효과 기대



HD현대일렉트릭 울산 사업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배전사업 확대에 투자한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장기계약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송전기기 경쟁력을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수주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 2845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15.1%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24.1%다.

이번 실적에서는 배전기기와 신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산업의 배전변압기 수요와 북미 배전기기 판매가 늘고 지난해 12월 수주한 신안 안좌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85.8% 증가했다. 북미 전력변압기와 중동 고압차단기에 이어 북미·국내 배전기기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배전사업의 확대는 북미 고객들의 발주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최근 북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형태의 장기계약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력변압기부터 배전변압기·배전기기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체결한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 기본계약에서도 배전기기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전력기기가 5673억원, 배전기기가 5539억원으로,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에 따라 개별 발주를 받아 2028년까지 공급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처럼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확보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청주 배전캠퍼스에 19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향후 26개월간 배전기기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생산능력을 늘린다. 투자 완료에 따른 연간 매출 증대 효과는 2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주잔고도 늘고 있다. 3분기 말 수주잔고는 88억4300만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전 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력기기의 장기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업 간 경쟁에서 일부가 뒤처지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설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력 수요 증가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력기기 호황을 15~20년에 걸친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화학, 미래차 소재로 유럽시장 공략

독일 자동차 부품 전시회 첫 참가
폭스바겐 제안에 국내 소재기업 유일
경량화·배터리 안전 소재 등 선봬



독일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IZB) 2026'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부스. /LG화학

LG화학이 고부가 미래차 소재를 앞세워 유럽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차량 경량화와 배터리 안전성뿐 아니라 재활용 소재 적용과 원가 절감까지 현지 완성차업체의 요구에 맞춘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IZB) 2026'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IZB는 폭스바겐그룹의 공급업체 전시회에서 출발한 자동차 부품·공급사 전문 박람회로, 격년으로 열린다. 올해는 33개국 85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예상 관람객은 4만명 이상이다.

LG화학은 폭스바겐그룹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참가했다. 지난 9월 양사가 미래차 모빌리티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내 소재 기업 중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곳은 LG화학이 유일하다.

전시 품목은 유럽 완성차업체들이 주목하는 친환경·전동화·고기능·원가 경쟁력 강화에 맞춰 구성했다. 금속 대체·무도장 소재 등 차량 경량화 솔루션과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PCR)을 적용한 내·외장재를 선보인다. 배터리 열폭주 지연 소재와 차량용 투명도 조절 필름 소재(SGF)도 함께 소개한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전시부스를 방문한 주요 고객사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무도장(Paintless)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원가 경쟁력 강화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품 안내에는 AI 도슨트를 활용한다. 관람객이 제품별 QR코드를 통해 소재의 물성과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이후에도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축한 e-Mobility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전시회는 폭스바겐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LG화학의 기술·제품력을 인정받아 미래차 소재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LG화학은 차별화된 소재 솔루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고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유한킴벌리, 흡수력 강화한 '화이트' 새단장

차세대 제품 '올데이드라이' 선봬

유한킴벌리가 생리대의 흡수력과 누수 방지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내놓고 여성용품 브랜드 '화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유한킴벌리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보송하게, 올 데이 드라이'를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로 정하고 차세대 전략 제품 '화이트 올데이드라이'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올해 실시한 생리대 구매 요인 조사에서는 '빠른 흡수력'과 '새지 않는 안심감'이 상위 3개 항목에 포함됐다. 회사는 소비자들이 흡수 속도뿐 아니라 사용 후 보송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시제품 약 30만개를 생산하고 4800건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흡수력과 착용감, 사용 편의성 등을 개선했다.

신제품은 중앙 펀칭홀과 고밀도 흡수층을 결합한 이중 흡수 구조와 360도 샘 방지선을 적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자체 시험 결과 1초 만에 흡수하고 최대 4시간 동안 보송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는 올데이드라이를 제로필, 스테이쿨과 함께 차세대 전략 제품으로 육성해 젊은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화이트 담당자는 "화이트 고유의 흡수 기술력과 축적된 고객 경험을 집약해 화이트 올데이드라이를 출시했다"며 "신제품을 필두로 여성들이 생리 중에도 자신의 일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SK스피드메이트, 통합 차량관리 서비스 개시

'THE 정비' 앱으로 정비이력·예약관리

SK스피드메이트가 차량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선보인다. SK스피드메이트는 통합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 'THE(더) 정비'와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THE 정비'는 차량 점검 결과와 정비이력, 매장 예약, 멤버십 이용 등 차량 관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차량 관리 앱이다. 차량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다음 점검 및 정비 시점에 맞춰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정비소에서 진행한 정비 내역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출시한 '종합안전점검'은 전문 정비사가 엔진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어, 차량 하부 등 총 61개 항목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진단기를 통해 엔진과 제동, 조향 등 주요 부위의 고장코드를 확인하고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한다. 타이어 상태 분석과 고장코드 설명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종합안전점검은 'THE 정비' 앱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전국 스피드메이트 180여개 매장에서 우선 운영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앱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무료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THE 정비' 앱 설치 후 회원가입과 차량 등록을 완료한 고객에게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1회 무료로 제공한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휴맥스모빌리티

AI 주차 시스템 구축

이대서울병원 주차 편의 개선

휴맥스모빌리티가 인공지능(AI) 기반 주차 시스템을 대형병원에 적용하며 피지컬AI 사업 확대에 나섰다. 주차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량 흐름에 따라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휴맥스모빌리티의 주차 인프라·운영 자회사 하이파킹은 서울 강서구 마곡 이대서울병원 주차장에 AI 기반 스마트 영상 유도 시스템 '에이아이파스(Ai-PAS)'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파킹은 이번 시스템 구축에 AI 카메라 370여대와 스마트 전광판 80개,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20여대를 투입했다. AI 카메라가 주차장 내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AI 서버가 혼잡도와 이동 흐름을 분석한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고선가 선박 효과에 실적 호조

3분기 영업익 68% 급증·특수선 성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고가에 수주한 선박의 매출 반영 확대에 힘입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화오션은 27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4139억원, 영업이익 48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9%, 67.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2조670억원, 영업이익은 1조6629억원으로 각각 27.6%, 80.7% 늘었다.

실적 개선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과거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건조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잠수함과 수상함 등 특수선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공정 진행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반면 전분기 대비 매출은 37.3%, 영업이익은 34.0% 감소했다. 2분기 해양 프로젝트의 매출을 인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인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하계휴가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환율 영향도 반영됐다.

4분기에는 일시타결금과 연간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화오션은 지난 6월부터 환헤지를 확대해 환위험 노출 규모를 줄인 만큼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선사업부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컨테이너선의 건조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선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선사업부는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과 울산급 Batch-Ⅲ 5·6번함의 공정을 앞당겨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 U+

Simply. U+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유심(USIM)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님의 이동통신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심 업데이트·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유심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유심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고객님
일정 : 2026년 10월 22일부터 순차 진행 예정
※ 고객님의 업데이트 예정일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행 하루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업데이트 중에는 통화 및 인터넷 연결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중 '서비스 없음(No Service)'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신 후에도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U+ 매장을 방문해 주세요.
※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등 금융·결제 앱은 본인 확인을 위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삼성 휴대폰의 업데이트 전 '다른 SIM 사용 제한' 기능이 켜져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 후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니 업데이트 전 반드시 해제해 주세요. (설정→'다른 SIM 사용 제한' 검색→해제)
※ 업데이트 후 화면상에 "비밀번호(PIN) 4~8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고 휴대폰 사용이 안된다면 '설정' 메뉴의 'SIM 카드 잠금' 항목에서 설정한 SIM PIN 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유심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U+one 앱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유심 상담센터 080-864-1010 |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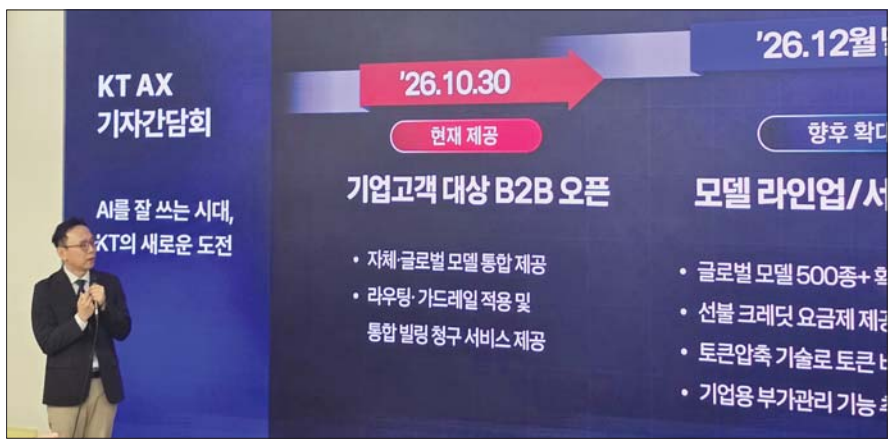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PI 하나에 73종 AI모델 연결… AI 요금제로 수익 얻는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KT '토큰팩토리' 출사표

AX 사업 전략 기자 간담회 열어
토큰 단위 비용 산정 과금체계 마련
오토 모델 라우터로 AI 사용 최적화
토큰 사용량 절감하고 안정성 강화
이달 30일 기업고객 대상 1차 개시
단독 모델 7종, 글로벌 모델 66종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이 사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KT가 '토큰팩토리'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에서 축적한 연결·과금·보안 역량을 토큰에 적용했다.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모델별 사용량을 토큰 단위로 측정해 비용을 산정하는 과금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KT의 이진형 AX사업본부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KT AX 사업 전략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에 음성을 분 단위로,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요금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토큰 기반으로 과금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KT는 전화번호 하나로 서비스를 이용하듯, 수많은 AI 모델을 단일 API로 연결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용·보안' 잡는다…AI 활용 통합 관리

토큰팩토리는 하나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여러 AI 모델을 연결한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최적의 AI 모델 선택으로 토큰 사용량을 절감하고, 정보 유출 위험까지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AI 모델 사용 최적화를 위한 핵심 기능은 '오토 모델 라우터'다. KT가 직접 개발한 모델 라우팅 기술로,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업무 유형·난이도·비용 등을 고려해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토큰 사용량 절감에 필수적인 '입력 프롬프트 압축' 기능도 지원한다. 질문 입력 시 반복되는 표현을 제거해 입력 토큰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모델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경량화 기술을 더했다. KT에 따르면, 이같은 모델 최적화 기술을 통해 토큰 사용량을 최대 25% 절감했다.

AI 활용의 안정성도 높였다. KT의 가드레일 기술을 통해 유해 정보와 특정 금지어를 차단하고, 국내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기능도 지원한다. 다만 프롬프트 비저장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기록을 지원한다. 이 밖에 KT가 제공하는 기업 전용망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크레딧 등으로 보상해준다.

◆ 이달 30일 1차 출시…AI 모델 73종 제공

'토큰팩토리' 서비스는 이달 30일 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1차 개시한다. KT가 개발한 AI를 포함한 단독 모델 7종과 글로벌 모델 66종을 더해 총 73종의 AI 모델을 제공한다.

핵심 모델 7종은 KT(믿음 3.0), 업스테이지(솔라-프로-4), 모티프테크놀로지(모티프-3), 구글(젬마-4-31B), 엔비디아(네모트론3 울트라) 등이다. 글로벌 모델 66종은 오픈AI(GPT-6-아스트라), 앤트로픽(클로드 페이블5), 딥시크(딥시크-V4) 등 다양하다.

출시 직후 11월부터는 글로벌 AI 모델 라인업 및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KT는 국내 최초로 AI 모델 마켓플레이스 1위 사업자인 오픈라우터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토큰팩토리에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AI 모델 500개 이상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기업용 부가 서비스를 추가 출시한다. 오는 3월에는 개발자를 위한 개인용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에 앞서 12월부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AI 코딩에 특화된 유라클과 캐스트 AI 등 국내외 전문기업과 협력을 지속해 'KT 토큰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제는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등 2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는 사용량과 기간을 약정하는 기업에 맞춤형 할인 등을 제공하는 특화 요금제다. 결제 방식도 기업별로 협의가 가능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탠다드의 경우 사용량 기반의 과금 방식을 택했다. 다만 결제 방식은 선불제와 후불제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 밖에 개인 개발자를 위한 구독형 요금제를 내년 3월 출시에 맞춰 선보인다.

과금 체계는 토큰 사용 기록을 관리하는 '토큰 디테일 레코드(TDR)'를 적용했다. 기존 통신 서비스 과금 데이터를 참고해 만든 새로운 요금 체계다. KT는 중개 수수료 중심의 사업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글로벌 사업자들의 중개 수수료율은 5% 안팎인데, KT는 이를 주된 수익 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AGI 시대 온다지만… AI 스스로 지능 향상은 '아직'

〈범용 인공지능〉

오늘 AI

가트너 'AI 재귀적 자기 개선' 보고서
최상위 AI 기업 'AGI 달성' 선언 전망
실제 AGI 기술 완성 의미는 아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작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모델의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술적 성과와 실제 AGI 구현 수준 사이의 격차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가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 향상을 반복할 수 있는지가 AGI 경쟁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발표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AI 재귀적 자기 개선'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상당수 최상위 AI 기업들이 AGI 달성을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업들의 선언이 실제 AGI 기술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등 기술적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AI는 지난 9월 최상위 AI 모델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며 AGI 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하지만 가트너는 해당 모델이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AGI 구현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핵심은 AI가 뛰어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기존에 갖추지 못한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가트너는 AGI를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특정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트너가 주목한 핵심 기술은 '재귀적 자기개선(RSI)'이다. AI가 자신의 성능을 개선하고, 향상된 능력을 활용해 다시 더 높은 수준의 AI를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개념이다.

현재 AI는 코드 작성과 실험 분석, 연구 자료 검토 등 개발 과정의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가 AI 자체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AI가 인간 연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과 연구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가트너는 AI가 자체적으로 지능을 끊임없이 높이는 이른바 '지능 폭발' 가능성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판단은 당분간 인간 연구자의 역할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CEO 현신균 사장(가운데 왼쪽)과 로이드인증원 글로벌커머셜어드바이저 스튜어트 켈리(가운데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LG CNS

LG CNS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중심 평가
임직원 준법리스크 점검 등 '우수'

LG CNS는 준법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기업 및 단체가 법률, 규제, 사내 규정, 윤리 기준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체계적으로 준수·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이다.

인증 적용 범위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LG CNS의 주요 사업 영역이다. 이번 심사를 맡은 로이드인증원(LRQA)은 ▲시스템 및 문서 검토 ▲경영진 및 담당자 인터뷰 ▲실제 업무 기록 확인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각 사업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검증했다.

LG CNS는 전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 준법 리스크 평가, 교육, 모니터링, 내부심사 및 경영진 검토 체계를 운영하며 국내외 법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해외법인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과 사내 포털을 활용한 임직원의 자기주도적 준법 리스크 점검 문화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조민선 기자

'유플러스원' 월 이용자 610만명 돌파

LG U+, 앱 출시 1년 만의 성과
순추천지수도 약 1.5배 높아져

LG유플러스는 통합 고객 플랫폼 '유플러스원'이 앱 출시 1년 만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약 61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플러스원 앱은 지난 8월 약 609만 6384명으로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는 멤버십 앱 '당신의 유플러스' 앱 통합 전인 지난해 10월(508만명)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증가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통신 업무 처리와 콘텐츠·혜택 강화를 꼽았다. 유플러스원은 통신 업무에 멤버십 혜택과 콘텐츠를 결합한 고객 플랫폼으로, 출시 이후 AI검색과 콘텐츠 채널과 개인화 기능을 강화하며 고객 접점을 넓혀왔다. 고객 경험 지표도 개선돼 고객 신뢰 지표인 순추천지수(t-NPS)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비 약 1.5배로 높아졌다.

대표 기능인 'AI검색'은 고객이 서비스나 메뉴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검색은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됐다. 초기에는 긴 설명 위주의 답변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고객이 원하는 핵심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고

LG유플러스는 최근 AI검색을 실제 업무 수행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플러스원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고객 확인을 거쳐 필요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은 여행 국가와 일정, 데이터 이용 성향에 맞는 로밍 상품을 추천받아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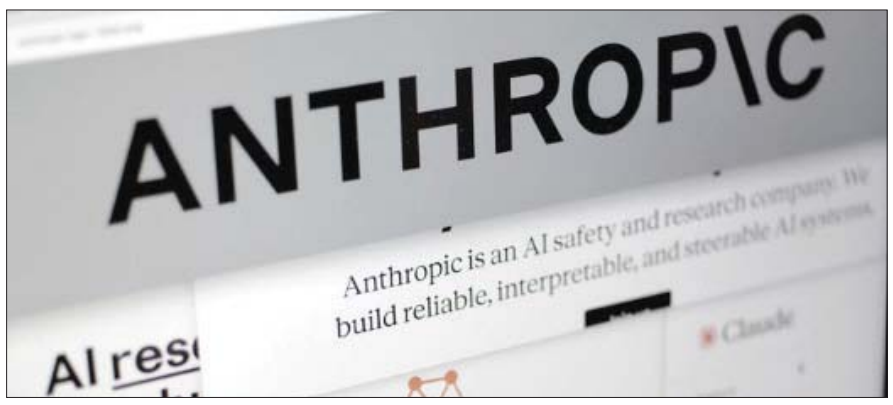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유플러스원 출시 1주년을 맞아 유플러스원 앱과 콘텐츠·혜택 채널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앱 내 하단에 있는 플러스(+) 탭이다. 고객이 통신 업무가 없을 때도 유플러스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콘텐츠·혜택 공간이다. 문화·여행·음식·라이프스타일 등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 정보, 신규 단말·로밍 관련 소식까지 제공한다.

현재 현대카드 다이브, 롱블랙 등 콘텐츠 전문 파트너와 협업해 깊이 있는 큐레이션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조민선 기자

글로벌 AI기업 줄줄이 IPO…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앤트로픽·오픈 AI 등 상장 추진
초기투자 국내 기업들 대박 조짐
공모흥행에 따라 AI 거품론 판가름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앤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된 모습

앤트로픽, 오픈AI, 딥시크, 문샷AI….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싼 비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G2(미국·중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기술을 앞세운 '꿈 주식'으로, 지금까지 스페이스X·테슬라·엔비디아·팔란티어 등 기술 선도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온 서학개미들의 투자 붐이 재차 일어날지 주목된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1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티커명은 'ANT'를 사용할 계획이다. 공모 주식 수와 희망 공모가 범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장 일정과 공모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앤트로픽의 기업가치가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는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가 세운 기록(1조7700억달러)이었다. 앤트로픽이 상장하면 기존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 사례가 된다.

◆'꿈 주식' 줄줄이 상장대기… 세계 투자금 블랙홀 되나

앤트로픽은 다음 달에 티커명 'ANT'로 나스닥에 A형(클래스 A) 보통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앤트로픽 창업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우리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 중 하나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회사 설립 목적으로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첨단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유지"라고 명시했다.

이번 상장은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제 수요와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IPO가 AI 투자 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시 데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르네상스 캐피털의 맷 케네디 수석전략가는 몇 달 전만 해도 투자자들은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앤트로픽이 올해 여름과 비교해 훨씬 어려워진 IPO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앤트로픽이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오픈A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AI 안정성 논란과 기업가치 손실 등에 대한 우려로 IPO를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앤트로픽의 상장으로 상황이 달라져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문사들은 올해 상장하려면 기업가치 기대치를 낮추거나, 1조달러 수준의 평가를 원한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연말 300억달러(약 40조7000억원)를 조달하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기업가치는 1조4000억달러다.

중국 AI 업체들도 뒤를 쫓고 있다. 중국의 대표 생성형 AI 업체 딥시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커촹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상장을 위해 중신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상장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딥시크는 상장을 앞두고 최신 투자 라운드에서 최소 800억 위안(약 16조원)을 확보했다. 딥시크 기업가치는 5000억 위안(약 100조원)으로 평가된다.

'키미'로 유명한 문샷AI는 홍콩 증시를 노리고 있다. 문샷AI의 기업가치는 잇단 투자 유치를 거치며 꾸준히 올랐다. 올해 여름 직전 라운드에서는 315억 달러(약 42조원)로 평가됐다. 향후 매출을 가늠하는 지표인 연간반복매출(ARR)은 현재 10억달러에서 연말까지 2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T대박, IPO 흥행시 원화·코스피 영향

앤트로픽이 상장 채비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에 수억 달러대 초기 투자를 해놓은 국내 기업은 벌써 대박 조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23년 앤트로픽에 1억 달러를 초기 투자한 데 이어 이후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앤트로픽의 가치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앤트로픽 평가차익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기대감 속에 SK텔레콤 주가는 이날 1.94% 상승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앤트로픽이 2조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기술기업들을 비롯한 장기 투자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과 구글의 투자이익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은 아마존이 보유한 전환사채(CB)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앤트로픽 지분 약 2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치 2조달러를 가정하면 지분 평가액은 약 4000억달러(약 540조원)에 이른다. 구글 역시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다. 현재 구글은 약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투자에 따라 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앤트로픽의 상장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AI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IPO 시장에서 처음으로 검증받는 사례여서다. 앤트로픽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 AI 거품론이 재점화하거나 빅테크 중심의 대형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오픈AI, 메타 등 경쟁사 사이에서 AI 모델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장에선 앤트로픽이 상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도 미국 달러 환전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 앤스로픽 IPO가 흥행하면 'AI 회사가 돈을 잘 버니 그 회사 때문에 돈 버는 회사 대신 AI 회사를 직접 사자'는 심리가 커질 것"이라며 "흥행이 부진하면 AI의 후방 산업인 메모리 등과 관련된 종목에 부정적이라 단기적인 수급은 어떻게든 앤스로픽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IPO에 직접 참여해 공모주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고객 자금을 모았다가 '0주'를 받으며 청약이 불발돼 논란이 됐던 점도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오른만큼 못 벌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 저점대비 38.5%↑
원화 강세 지속… 수익 40% 이상 상쇄

#.직장인 도모(31·여)씨는 지난해 1분기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같은 비중으로, 이더리움을 조금 섞어 100만원어치 넘게 샀다. 도씨는 "막차 타고 샀다"며 웃었다. 현재 수익률은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42%, 리플 -56%로, 전체로는 38% 손실이다. 도씨는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는데 수익률은 그대로라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은 올랐지만 환율이 내리면서 원화로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현금 대비 향후 가치가 더 있을 것 같다"며 계속 보유할 생각이다.

원화값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바이낸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저점 부근이던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달러 기준 38.5%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8934만8000원에서 1억887만9000원으로 21.9% 오르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이 1548.4원에서 1324.6원으로 14.5%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17%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것이다. 바닥을 정확히 짚고도 달러 기준 수익의 40% 넘게를 환율로 잃은 셈이다.

그나마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든 수익 일부를 메웠다. 7월 초 업비트 비트코인은 해외보다 1.6% 싸게 거래되는 '역(逆)프리미엄' 상태였지만, 23일에는 해외보다 1.2% 비싸게 거래됐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평가받은 셈이다. 해외 가격에 환율만 곱해 환산하면 원화 수익률은 18.5%로, 업비트 실제 수익률(21.9%)보다 3.4%포인트 낮다.

연초 이후로 기간을 늘려보면 투자자 손실은 두 배로 불어난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달러 기준 7.4% 하락했다. 그러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1억2800만원에서 1억887만9000원으로 14.9% 떨어졌다.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3% 줄었고, 거래소 원화예치금도 35% 감소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유출과 거래소 유입, 위험 회피 심리를 감안하면 조정 국면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저평가가 심화된 만큼 현재 가격대는 중기적으로 저가 매집에 유리한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왼쪽부터) 이수민 두나무 임팩트비즈니스실 실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 대통령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나무

두나무, 대통령표창 수상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가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두나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업의 특성을 살려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부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업비트 이용자들과 함께 총 14비트코인을 구호성금으로 전달했으며, 2025년 국내 수해 복구에도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등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사회공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ETF 위험등급 안내 강화

내년부터 투자한도·위험등급 함께 표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등급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매매화면과 상품검색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위험등급을 병기한다. 일부 사업자는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원리금보장형이 360조3000억원, 실적배당형이 198조원이다. 실적배당형 가운데 ETF 투자 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2023년 말 9조원이었던 ETF 투자 규모는 2년 반 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ETF 위험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인터넷 매매화면에서 상품 위험등급 없이 투자한도만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투자한도는 같아도 위험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 펀드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 변동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재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한 국고채 30년 ETF는 위험등급이 2022년 8월 5등급인 '낮은 위험'에서 올해 8월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으로 변경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상품을 매수할 때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한다. 상품의 이익·손실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 정보를 추가한다.

상품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을 바꾼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유상품 목록에 위험등급을 표시해 수익과 위험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에게 투자한도만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판단하지 말고,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위험등급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베트남 호찌민 이어 하노이까지… K-AI 물관리 기술 세계로

수자원공사, 하노이 송둥 정수장에 AI 정수장 운영 기술 도입 계약
3단계 걸쳐 19억4000만원 투입

국내서 검증된 한국형 인공지능(AI) 물관리 기술이 베트남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에 이어 북부 수도 하노이까지 영토를 넓힌다. 소프트웨어와 운영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해외 진출 모델이 잇따라 결실을 맺으면서 K-물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송둥(Song Duong) 정수장에서 현지 운영사인 송둥(SDWTP) JSC와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베트남 호찌민시 켄동정수장에 이은 공사의 제2호 AI 정수장 기술수출이다. 호찌민 진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뤄낸 후속 성과로, 단발성 인프라 수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소프트웨어 중심의 해외 진출 모델이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국수자원공사 한성용 그린인프라부문장(오른쪽)이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송둥정수장에서 부이 꽝 후이(Bui Quang Huy) 송둥JSC 사장과 AI 정수장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송둥정수장 전경. 하루 30만㎥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약 300만 명의 하노이 동부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주요 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의 AI 기술을 도입해 약품주입 자동제어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국내에서 검증된 물관리 기술이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에 이어 북부 수도 하노이까지 확대 도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하노이 핵심 급수시설에 19억원 규모 AI 기술 적용

이번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약 19억 4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계약 대상인 송둥정수장은 하루 30만 ㎥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하노이의 주요 급수시설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AI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사업에 적용되는 AI 정수장 기술은 수질과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원수의 수질 변화와 조건에 맞춰 응집제와 염소의 적정 주입량을 예측·제어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등대'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공사의 AI 정수장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안 공식 투표(DIS 단계)를 통과하며 2027년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이처럼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역으로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을 본격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현지 물기업·상하수도협회와 손잡고 인프라 사업 확장 '시동'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협력 폭도 넓어지고 있다. 공사는 앞서 21일 베트남 인프라 투자·건설기업 비나코넥스(VINACONEX)의 관계사이자 물·환경 전문 기업인 비와신(VIWASEEN)을 비롯해 베트남 상하수도협회(VWSA)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사는 자사의 첨단 물관리 기술력과 현지 주요 기업들의 사업 역량을 결합해,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베트남 전역의 상하수도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제2호 AI 정수장 기술 수출은 호찌민에 이어 하노이까지 우리 물기술의 연속적인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현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K-물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 공정위 과징금에 "GOS, 최적화 조치였다" 반박

〈게임 최적화 서비스〉

공정위, 갤S21·S22·탭S8 시리즈 기만광고 판단… 과징금 201억 부과
삼성전자, 법적 절차로 입장 소명

스마트기기의 최고 성능을 홍보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일률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GOS)의 제한 사항을 숨긴 삼성전자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이례적인 성능 제한'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 기기를 판매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했으나, 고사양 게임앱 실행 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1억 1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기기는 ▲갤럭시 S21 시리즈(2021년 1월~2022년 3월 판매) ▲갤럭시 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2022년 2월~3월 판매)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의 출시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언팩(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에도 반응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기기의 뛰어난 게임 실행 성능을 내세웠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할 경우, 기기의 발열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핵심 반도체 칩인 AP(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일률 제한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을 위해 높은 AP 성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GOS 개별정책으로 인해 성능이 강제 제한되면서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화면이 뚝뚝 끊기는 '지연(lag) 현상'이나 해상도 저하 등 성능 저하 불만이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기기의 게임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도,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클럭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능 최적화 기술이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실행하면 기기 온도가 상승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과열 전에 시스템 자원을 조절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자체 통제 실험 없이 일부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고 회사가 제출한 실험자료 중 불리한 결과만 선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실행 직후 로딩 구간까지 FPS 분석에 포함해 실제 플레이 성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해당 구간을 제외하면 클럭 상한을 적용한 경우의 FPS가 오히려 높거나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기업-GTICC 공동R&D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사진. (왼쪽부터) 차성진 에스피아이앤티 대표, 전윤종 KIAT 원장, 마커스 부스만 토론토대기계공학과장, 김종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KIAT

KIAT

5극3특 성장엔진에 글로벌 연구역량 결합

부산서 '글로벌 기술협력 심포지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손잡고 지역 성장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KIAT는 지난 26일 부산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5극3특-GITCC 글로벌 기술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5극3특)의 성장엔진에 글로벌 연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기업과 해외 연구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가시화됐다. 부산 지역기업 에스피아이엔티는 캐나다 토론토대와 공동 R&D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스위스의 세계적 명문 공대인 취리히연방공대가 신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GITCC)로 지정되면서, KIAT의 북미·유럽 내 핵심 협력 거점은 총 9곳으로 확대됐다.

이어 열린 기술 세미나에서는 토론토대와 취리히연방공대 연구진이 제조 데이터 분석, AI 에이전트, 품질 예측, 피지컬AI 등 첨단 기술을 발표하고, 지역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진공, AI로 누구나 쉽게 해운·항만·물류 정보 찾는다

'KOBC AI 정보 서비스' 운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KOBC AI 정보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관심 분야에 맞는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았던 해양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서비스는 ▲대시보드 ▲뉴스 ▲지수 ▲리포트 ▲캘린더 등 총 5개 메뉴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대시보드 화면 하나로 주요 시장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실시간 뉴스부터 해상 운임지수, AI가 작성한 시장 분석 리포트 및 주요 행사 일정까지 통합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특히 '카카오톡 맞춤형 AI 시황 브리핑'을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 정보를 보다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가 관심 키워드를 설정하면 생성형 AI가 이에 맞춰 수집·분석한 주요 뉴스, 운임 지수, 관련 리포트 및 행사 일정 등을 정리해 준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고, 관심 산업과 시장의 주요 동향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해진공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의 정확도와 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국내외 주요 뉴스를 비롯해 해진공이 공식 발간한 리포트를 AI로 분석·정리해 고품질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KOBC AI 정보 서비스를 통해 매일 아침 카카오톡 알림으로 꼭 필요한 시황과 뉴스를 한눈에 파악하면 시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해양산업 분야의 대표 AI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구미, AI 접목 초등돌봄 강화… 2030년까지 센터 30곳 확충

경북 최다 돌봄센터 22곳 운영
24시 돌봄으로 야간·긴급 공백 해소
방학 틈새돌봄 최대 66일 확대
AI 로봇 활용 놀이·학습·안전 지원
빅데이터 분석해 신규 입지 발굴


구미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어린이들이 AI 돌봄로봇과 함께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다인 22개 다함께돌봄센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2030년까지 시설을 30개소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8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야간·긴급돌봄과 방학 중 틈새돌봄, AI 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산동쌍용 마을돌봄터, 9월 산동중흥 마을돌봄터를 개소해 도내 최다인 22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구미24시 마을돌봄터'를 개소했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은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인 'K보듬 6000' 추진에도 기반이 됐다.

시는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부터 학교별 방학 일정에 맞춰 최대 30일간 이용하는 '틈새돌봄'을 시행했다. 기존 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올해 시범 운영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2027년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66일까지 늘릴 계획이다.

AI 기반 돌봄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돌봄 공간에 첨단기술과 놀이·학습 콘텐츠를 접목해 아동들이 돌봄 시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미24시·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에는 책을 읽어주는 AI 클로바, 사이버도서관, 코딩로봇, 미래형 실내 암벽 등 놀이·학습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구미24시 마을돌봄터는 경북도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1억 원 상당의 로봇을 지원받았다. 코딩로봇은 블록코딩과 놀이형 미션을 지원하고, AI 돌봄봇은 정서교감 대화와 위험행동 알림, 센서 기반 화재 감지 기능을 제공한다. 독서로봇 '루카'는 책 페이지를 인식해 내용을 읽어주고 반복 재생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해 돌봄시설 내 학습과 체험 기회를 늘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지역별 수요와 입지 여건을 분석해 2030년까지 돌봄센터를 3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도출된 최적 입지 10개 구역과 공동주택 내 시설, 유휴공간 등을 검토한다. 2027년까지 확보한 3억 8,500만 원에 추가 설치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시설뿐 아니라 의무 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업과 출산, 돌봄,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인구 증가의 핵심"이라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겠다"고했다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경남, 전남광주와 남해안 공동 발전 맞손

남해안·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협력
해양환경 보전·섬 발전 공동 추진



박완수 경남지사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2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남해안 상생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2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남해안 상생 발전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광역행정통합을 이뤄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도가 한려수도를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으로서 남해안 공동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장과 하동군수, 통영시·사천시 부시장, 남해군 부군수 등 양 시도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해양환경 보전과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양 지역이 함께 추진할 협력 과제가 담겼다.

양 시도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양, 일산대교 출퇴근 무료화 추진 탄력

고양시의회 동의안 최종 가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시의회 동의를 확보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와 김포·파주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합의 동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고양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의회 의결이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관련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간 세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 파독간호사 고국 체류 지원 검토

파독간호사 91명 고국 방문

파독 60주년을 맞아 독일에서 청춘을 보낸 파독간호사 91명이 고국을 방문한 가운데 경북도가 이들의 고국 체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구미 호텔금오산 그랜드홀에서 '파독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호 구미시장, 재독한인간호협회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1960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간호요원은 약 1만 1,000명이다.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고국에 송금한 금액은 1억 153만 달러로, 1965~1967년에는 대한민국 총수출액의 1.6~1.9% 수준이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가족과 조국을 위해 독일에서 일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광부·간호사들과 만났던 당시를 회고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파독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물며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달 살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파독간호사들의 고국 체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칠곡군, 中企 말레이시아 수출길 활짝

17.5만달러 계약·511만달러 MOU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칠곡군의 행정지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해외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칠곡군과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해 17만5천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511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10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유전용 기자재 생산기업 에스디넥스피어(주)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3곳과 17만5천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에스디넥스피어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최소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칠곡군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에스디넥스피어의 배선봉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김재욱 칠곡군수(가운데)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현지 바이어들에게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알리며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칠곡군은 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등 실무 지원도 병행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인천시
반려동물복지센터 문 열어

인천시는 26일 연수구 청학동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옛 문학터널 관리동을 정비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300만 원이다. 센터에서는 보호동물의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화와 행동 교정을 통해 동물이 새로운 환경과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고 입양 상담과 입양 후 관리,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시민 대상 교육도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센터의 첫 입양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는 '1호 입양식'과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 등이 함께 열렸다. /인천광역시=이숙영 기자 sy1321@

포항시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소 개소

포항시가 26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를 개관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북도와 공동 추진한 센터는 배터리 모듈과 팩의 성능·잔존수명을 진단하고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를 등급별로 판정한다. 최대 150대의 배터리를 평가하고 연간 3만 대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기존 하루 1~2대 수준이던 평가 역량을 확대하고 자동화된 표준 공정으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순창군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순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지방세 관련 제도와 감면 혜택, 신고·납부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군민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 및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 지방세 납부 방법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등이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bc6746@

부산테크노파크
패패부산서 에티오피아관 운영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29~31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PFB 패패부산 전시회'에서 에티오피아 가죽·신발 기업 6개사의 공동관을 운영한다. 참가 기업들은 72㎡ 규모 공동관에서 신발·가방과 가죽 소재를 전시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만난다. 이번 공동관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의 '에티오피아 가죽 및 가죽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부산TP와 한동대가 에티오피아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내추럴슈즈 ▲케르에지 ▲달가 ▲콜바 태너리 ▲레더 엑조티카 ▲엘리코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메이크업 해주고 위스키 따라주고 면세업계, 경험으로 관광객 잡는다

신라 고객 참여형 메이크업 쇼
현대 AI 기반 체험 콘텐츠 운영
롯데 글렌모렌지 마스터클래스



지난 23일 서울 더그랜드롯데 서울 35층 피에르가니에르 바에서 롯데면세점이 연 '글렌모렌지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한 롯데면세점 최상위 내국인 고객들의 모습. /롯데면세점

면세업계가 뷰티 체험과 문화 콘텐츠 등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면세업체들은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뷰티 체험과 문화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합한 고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뷰티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지방시·겔랑과 협업한 메이크업 쇼를 진행했으며, 신세계면세점도 아워글래스 한정판 팝업스토어와 고객 참여형 메이크업 쇼를 선보였다. 브랜드 전문 아티스트의 시연과 제품 체험 등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별화 상품과 K컬처를 활용한 고객 유치도 병행한다. 신라면세점은 뷰티 브랜드 단독 상품을 확대했고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에 K뷰티 브랜드 40여개를 모은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방탄소년단(BTS) 관련 굿즈 등을 판매하는 'K-WAVE존'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와 VIP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와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3일 최상위 회원을 대상으로 위스키 시음과 푸드 페어링을 결합한 '글렌모렌지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으며, 오는 29일에는 샴페인 클래스를 진행한다.

면세업계가 쇼핑 경험 차별화에 나선 배경에는 방한 외국인 증가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매출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국인은 1504만84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다.

반면 면세점 매출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8월 외국인 구매객은 전년 동월 대비 39.1% 증가했지만 매출은 8.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객단가는 73만5520원에서 57만863원으로 22.4% 감소했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1.6% 줄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도 6조47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24년 상반기보다는 12.5%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면세점의 핵심 고객층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과 다이궁의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성장해 2019년 연간 매출 24조858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이궁 비중이 축소되고 개별여행객이 늘면서 구매 규모가 줄었다. 국내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2021년 16조7479억원에서 지난해 8조2316억원으로 50.9% 감소했다.

반면 시내 유통업체들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누적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각각 8500억원, 805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업체별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는 다이궁이 차지하던 기형적인 매출 구조가 개별 관광객 기준으로 변화하고 시내 유통 채널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다"면서 "다른 유통채널과 기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 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발길을 잡아 끌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 "AI 에이전트 기획·개발 도전하세요"

'롯데 AX 챌린지' 개최… 예선 접수

롯데가 AI 경진대회 '롯데 AX 챌린지 2026(LOTTE AX Challenge 2026)'을 개최하고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선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AX 챌린지 2026'은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채용 연계 AI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롯데호텔, 롯데이노베이트, 한국후지필름 등 7개사가 참여한다. 오픈AI는 기술 지원을 맡아 AI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심사에도 참여한다.

대회에는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AI 에이전트 기획 및 개발 능력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선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참여 계열사가 제시한 7개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 방안을 담은 기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방법과 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선은 다음 달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며, 과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과 AI 에이전트 완성도, AI 기술 활용 역량 등을 평가받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자 7명에게는 롯데그룹의 실무 중심 채용 제도인 '아이엠(I'M, I'm Mania) 전형' 지원 시 채용 전환형 인턴십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 관계자는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며 AI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AI 인재들을 발굴해 롯데의 AX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LF 마에스트로, '고급화·글로벌' 전략 강화

브랜드 40주년… 특별 컬렉션 선봬

40주년을 맞은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MAESTRO)가 기념 행사와 특별 컬렉션을 선보이는 한편, 하이엔드 라인과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마에스트로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편집숍 '라움 이스트'에서 VIP 고객 약 20명을 초청해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배재훈 LF 마에스트로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토크쇼와 고객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40년간 쌓아온 테일러링 기술과 브랜드 철학, 2026년 가을·겨울 및 2027년 봄·여름 컬렉션을 소개했다.

40주년 기념 특별 컬렉션도 선보인다. 이탈리아산 고급 원단을 활용한 수트·재킷·코트 5종으로 구성했으며, 재킷에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컴포트 핏(Comfort Fit)'과 남성적인 구조미를 강조한 '로마 핏(ROMA Fit)'을 각각 적용했다. 내달 8일까지 과거 브랜드 로고를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40주년을 기점으로는 '이탈리안 엘레강스(Italian Elegance),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급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 ▲편안한 착용감을 강조한 '소프트 테일러링(Soft Tailoring)'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모던 헤리티지(Modern Heritage)' ▲기술 혁신과 장인정신을 강조한 '크래프트맨십(Craftsmanship)'을 3대 핵심 가치로 삼았다.

해외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마에스트로는 2022년 베트남 호찌민에 첫 해외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 4월 하노이센터에 3호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베트남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향후 추가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아성다이소, 온·오프라인 통합 물류체계 강화

양주허브센터 건립 기공식

6000억 투자… 2029년 완공 목표
박정부 회장 "지역 상생협력 노력"



아성다이소는 지난 26일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서 양주허브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가 온·오프라인 복합 물류센터인 '양주허브센터' 건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6일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서 양주허브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과 정덕영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협력업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주허브센터는 온·오프라인 매출 성장에 대응하고 물류 처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건립된다. 오프라인 매장과 다이소몰에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증가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는 은남산업단지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에 조성 중인 약 99만2000㎡ 규모의 산업단지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과 인접해 있다.

아성다이소는 양주허브센터 건립에 총 6000억원을 투자하며, 2029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운영에 따른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주허브센터는 아성다이소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 세종허브센터에 이어 네 번째로 건립되는 허브센터다. 완공 후에는 수도권과 강원권 8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하루 5만 건의 다이소몰 주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지면적 11만1600㎡, 연면적 20만6102㎡ 규모로 지상 4층·지하 1층으로 조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문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하는 '옴니채널' 물류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물류를 분리하지 않고 재고와 물류 설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재고 중복 보관을 줄이고 공간과 설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물류 운영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양주허브센터에는 글로벌 물류 자동화 기업 크납(Knapp)의 자동화 설비인 OSR(Order Storage and Retrieval)과 GTP(Goods to Person), ODS(Order Distribution System) 등이 도입된다.

총 478대의 OSR 고속 셔틀과 46기의 리프트는 시간당 2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재고를 하나의 셔틀랙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설계했으며, GTP와 ODS를 통해 상품 전달과 출고 과정을 자동화해 작업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양주허브센터가 완공되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상품 공급 역량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물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은 "아성다이소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네 번째 물류센터인 양주허브센터를 착공한다"며 "양주허브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신제품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 감사 우유 케이크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제복근무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서울우유 감사 우유 케이크'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서울우유와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훈부가 협업해 군인,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우유 감사 우유 케이크'는 우유, 생크림, 연유 등 서울우유의 제품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크를 직접 꾸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 및 서울우유 로고 등으로 구성된 굿즈와 감사카드도 함께 제공한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제복근무자 유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우유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냉동 케이크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디저트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샘표

'연두 육수한포' 2종

샘표가 분말육수 '연두 육수한포' 2종(다시마표고야채·멸치디포리)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코인육수 '연두링'에 이어 국물 요리뿐 아니라 볶음, 조림,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연두 육수한포'는 소비자들이 코인육수를 부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해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요리에 빠르게 녹고 한 포씩 개별 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연두 육수한포 다시마표고야채'는 국산 다시마, 표고버섯, 우엉, 생강, 연근 등을 사용했다. '연두 육수한포 멸치디포리'는 통영산 멸치와 디포리를 활용했으며, 멸치와 디포리 함량은 원물 원료 기준 93.7%다. 재료를 110℃에서 구워 비린 맛을 줄이고 구수한 풍미를 살렸다. 두 제품 모두 콩 발효에서 얻은 감칠맛을 더했다. /김서현 기자

바로팜, 코스닥 상장 승부수… 자체 생산으로 수익성 강화

〈약국 플랫폼〉

약국 90% 확보·상반기 흑자 전환
가입 포화에 수익 다각화 과제 부상

바로팜, 데이터 구독·K뷰티 확대
한미 온라인팜, 주문·반품 고도화
GC메디아이, AI 맞춤 주문 강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슬기 바로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바로팜

전국 약국의 90%를 우군으로 확보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꾼 바로팜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가입 약국 수 2만 4000곳 돌파와 상반기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전통 제약사 계열 플랫폼들의 매서운 반격과 피어그룹(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7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바로팜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특히 바로팜은 전국 1만 6000여 곳의 월간 활성 약국(MAU) 트래픽을 발판 삼아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제약사 대상과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독 사업, 20여 개 K뷰티 브랜드의 약국 입점을 돕는 직매입 유통 등을 추진한다. 또 자회사 CHD제약을 통해서는 일반의약품부터 전문의약품까지 생산을 내재화해 원가율을 50% 미만까지 떨어뜨려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공모 자금으로는 수급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엔진 고도화, 의사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더마 코스메틱 '레비클'의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도 속도를 낸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약사 출신으로 약 1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일 출근 50여 개 제품을 30분 넘게 주문하던 불편함을 겪었던 만큼 바로팜을 전국 약국 업무의 필수 인프라로 성장시키겠다"며 "나아가 플랫폼, 파트너십, 자사 브랜드 사업이 서로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을 함께 실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국 약국의 약 90%인 2만 4787곳이 이미 바로팜에 가입함에 따라, 신규 회원 유입을 통한 외형 성장은 사실상 정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바로팜의 향후 주가는 신규 가입자 확대가 아닌 약국당 주문 빈도와 결제액, 그리고 플랫폼 내 수익화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좌우될 전망이다.

상황을 더욱 달구는 것은 기존 전통 제약사 계열 플랫폼들의 대대적인 고도화 움직임이다.

한미사이언스 계열 온라인팜의 'HMP MALL'은 최근 '온커넥트' 부가서비스를 통해 주문 정보 자동 연동과 일련번호 조회, 반품 일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이용 건수를 6배나 끌어올렸다. GC녹십자 계열 GC메디아이 역시 25주년을 맞아 '미소몰닷컴'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주문·재구매 시스템 및 브랜드관 타깃 광고 플랫폼으로 전면 리뉴얼하며 병·의원과 약국가 트래픽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B2B 유통 플랫폼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이번 상장 과정에서 적절한 비교기업(피어그룹)을 찾는 것은 주관사와 회사 측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번 바로팜 기자간담회 현장 Q&A에서 피어그룹 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철호 바로팜 최고재무경영자(CFO)는 "동종 업계에 완벽한 피어가 없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온 터라 주관사와 피어 선정을 두고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쟁 관계인 한미 '온라인팜'과 대웅 '대웅더샵', 대형 도매상 '지오영' 등은 비상장 상태여서 비교군에서 제외됐다. 재무적 유사성 검토 대상이었던 'GC메디아이' 역시 2026년 상반기 당기순손실 약 1억3600만원이 발생해 최종 피어그룹에서 탈락했다. 이에 바로팜은 M3, 독스미티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더불어 아데니타, 한미사이언스 등을 최종 비교군으로 조합해 밸류에이션을 산정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이슈가 약국가와 플랫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약 배송 등은 시행되지 않는 단계"라며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전 조제는 결국 약국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약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대표는 "이미 환자가 원격 진료 후 조제 가능한 가장 빠른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약국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고수익 제품 앞세워 역대 최대 실적

3분기 매출 1.58조·영업익 5253억
신규 제품군 매출 74% 급증 9058억
영업이익률 33.3%로 수익성 개선

셀트리온이 고수익 신규 제품군의 판매 확대로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27일 공시를 통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5755억원, 영업이익 52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한 잠정실적보다 매출액이 755억원, 영업이익은 153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1%, 영업이익은 74.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3.3%로 4.0%p 상승했다.

고수익 신규 제품군의 판매 확대와 제품 구성 개선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반영된 결과다.

회사측은 이번 실적은 신약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손익에 반영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에는 신규 제품군 매출만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증가한 9058억원을 기록해 1조원에 근접했다. 바이오제품 매출에서 신규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전분기 대비 2%p 높아졌다.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율도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을 21.2%p 웃돌았다. 합병 첫해인 2024년 3분기 23.6%였던 영업이익률은 이번 분기 33.3%를 기록하며 약 10%p 늘어났다.

'램시마SC'와 이 제품의 미국 브랜드 '짐펜트라'는 3분기 합산 매출 25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104억원으로,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플라이마'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83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2.3% 대폭 증가했다. 유럽에서 '퍼스트무버' 출시 효과를 활용해 주요국 입찰을 확보하고, 국가별 직접판매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한 결과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판매 지역을 넓히는 동시에, 항체약물접합체 등 신약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탄탄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고수익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옴리클로 미국 출시 등 신규 제품군의 판매 지역 확대를 바탕으로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아정 아이디나인 공동대표 내정자(앞 줄 왼쪽부터), 윤웅섭 일동제약 공동대표, 이기운 나인앤컴퍼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일동제약그룹, 더마뷰티 시장 공략 본격화

나인앤컴퍼니와 '아이디나인' 설립
마이크로바이옴·브랜드 역량 결합

일동제약그룹이 패션·소비재 기업 나인앤컴퍼니와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더마 뷰티 및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제약사가 보유한 원천 기술과 소비재 기업의 브랜드 기반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동제약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성동 소재 나인앤컴퍼니에서 새 합작법인 '아이디나인' 출범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작법인 출범은 이종 산업 간 핵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제휴에 중점을 둔다. 양사는 일동제약그룹이 보유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과 나인앤컴퍼니의 패션·소비재 브랜드 운영법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동제약그룹이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원료인 '세라글로우'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세라글로우는 피부 장벽의 핵심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 생성을 돕는 물질로, 일동제약그룹은 관련 특허 2건과 SCI급 연구논문 2건을 확보해 상용화 준비를 마쳤다.

세라글로우를 처방해 피부 장벽 관리에 특화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군은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임상 1상 성과

유럽종양학회서 SB27 결과 발표
오리지널과 약동학적 동등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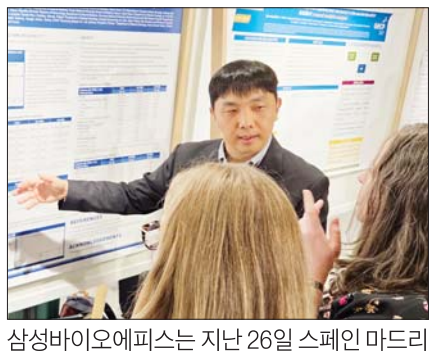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3~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6년 학술대회에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SB27'(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ESMO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양학 학회로, 올해는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및 온라인을 통해 세션이 동시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6일 SB27의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 발표했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6조원(31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수용체인 PD-1(Programmed cell Death Protein-1)에 결합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억제함으로써, 인체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 다양한 암종에서 폭넓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4개국 163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SB27 임상 1상을 진행해 왔으며, 환자들은 SB27 혹은 미국·유럽 허가 키트루다를 투여받는 군으로 나뉘어 치료를 받으며 그 결과를 분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7 임상 1상의 1차 평가 변수인 '사전 설정한 시점의 투여 후 혈중 농도-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 분석 결과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6년 학술대회에서 SB27의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 발표했다.

보령, 우주 헬스케어 사업화 본격 시동

독일우주청과 연구 협력 MOU 체결

보령이 우주 생명과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첫 번째 글로벌 기관을 확보하며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그동안 진행해 온 전략적 투자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첫 결실이다.

보령은 독일우주청(DLR)과 '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 협력 및 인프라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보령의 우주 헬스케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휴먼스 인 스페이스(HIS)'를 통해 시작된 양측의 협력이 1호 잠재 고객 관계를 이뤄냈다. 독일우주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 등과 함께 세계 우주의학 연구를 선도하는 최고 권위 기관이다. 양측은 공동 연구과제 발굴은 물론, 독일우주청이 자체 추진하는 우주의학 연구를 보령의 우주 연구 인프라에서 실험·검증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청하 기자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aT,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외조직망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 5곳과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해외조직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인권침해 등 윤리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는 aT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관광공사(KTO),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이 참여했다. /aT



SK이노,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대상 힐링캠프

SK이노베이션은 26~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등 50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돌봄을 돌보다'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돌봄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한 것이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만큼 이들의 심신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돌봄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이노베이션



볼보트럭코리아, 시니어·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에서 시니어 300명과 어린이 4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SLW(Stop-Look-Wave)'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시니어 대상 교육을 도입한 것은 업계 최초다. SLW는 보행자가 '멈추고(Stop), 살펴보고(Look), 손을 흔들어(Wave)' 운전자와 눈을 맞춘 뒤 안전하게 횡단하는 보행 수칙이다. /볼보트럭코리아



동화약품, 글로벌 행사서 '韓원조소화제' 선봬

동화약품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맵달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교류 행사 '서울 바이브 2026'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1897년 탄생한 활명수의 정통성과 역사를 갖춘 '한국원조소화제(K.O.D)'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인플루언서 700여 명이 함께한다. 동화약품은 글로벌 소비자들과 교류하며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동화약품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KBL 유스 캠프' 성료

동아오츠카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6 포카리스웨트 히어로즈 KBL 유스 엘리트 캠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KBL이 주최하고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 이번 캠프에는 중고농구연맹 소속 중·고등학교 선수 83명이 참가했다. 동아오츠카는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포카리스웨트와 생수 '마신다'를 지원했다. /동아오츠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미래세대 진로탐색 지원

청소년 대상 항공 진로 특강 진행
아동 안전체험관 견학 봉사활동
성장 지원, 지역사회 유대 강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세대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아동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양사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은 지난 26일 경기 김포시 고촌중학교에서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운항·객실승무원 직업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은 조종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은 직무 특성과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멘토링에서는 학생들이 항공 분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 직업 특강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항공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청소년 약 80명을 대상으로 항공 진로 특강 프로그램 '드림 토크(Dream Talk)'를 진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청소년 약 100명에게 직무 경험을 공유하는 등 미래세대와의 접점을 넓혔다.

양사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양사 임직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아동들의 안전체험관 견학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산업안전 담당자와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 담당자 등 임직원 8명이 참여해 체험 활동을 도왔다. 양사 임직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두 손 모아' 활동의 일환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임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며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윤상현 "K-뷰티 지속성장, 100% 가능"

〈콜마그룹 부회장〉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6'서
K-뷰티 지속가능 주제 기조강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이 'K뷰티의 지속성장은 100% 가능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국콜마는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으로서 K뷰티만의 혁신성을 구현하고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K뷰티를 확산하며 글로벌 뷰티 생태계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6'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K뷰티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2024년 아마존과 첫 행사를 함께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단독 제조 후원사로 참여하며 글로벌 뷰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윤상현 부회장과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사, 브랜드사, 유통사, 투자사 등 1만여 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결집했다.

윤 부회장은 강연에서 K뷰티 핵심 경쟁력으로 '끊임없는 신규 브랜드의 출현'을 꼽았다. 윤 부회장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한국콜마와 같은 ODM 기업이 제품을 고품질로 제조하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주는 유기적 산업 생태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새로운 브랜드가 끊임없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이야말로 K뷰티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태광그룹, 이임용 선대회장 30주기 추모식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 다져

태광그룹이 창업주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 30주기를 맞아 고인의 경영철학을 되새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다졌다.

태광그룹은 27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씨네큐브에서 이 선대회장 30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과 주요 계열사 대표, 임직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고인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담은 추모영상 상영에 이어 일주학술문화재단 음악 전공 장학생들의 추모 연주회가 진행됐다.

이호진 고문은 추모사에서 "지난 70여년간 태광을 굳건히 지탱해 온 주력 사업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태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 선대회장은 1954년 태광산업사를 설립한 뒤 섬유와 석유화학,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그룹의 기반을 다졌다. 1967년 울산 아크릴공장을 준공하고 1973년 흥국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태광산업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업 다각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태광그룹은 다음 달 8일까지 씨네큐브 로비에서 고인의 어록과 육성자료, 유품, 그룹 성장사를 담은 사진과 모형 등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서 열린 이임용 전 태광그룹 선대회장 30주기 추모식에서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車 서비스센터,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아우디코리아 '인사이드 아우디 데이'
차량 점검, 차체 수리·도색 등 체험

아우디코리아가 고객 체험 행사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접점 확대에 나섰다. 차량 정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리까지 서비스 과정을 공개하며 구매 이후 고객 경험을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4일 공식 딜러 위본모터스의 경기 성남시 분당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고객과 가족을 위한 '인사이드 아우디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 테크니션과 함께하는 차량 점검을 비롯해 차체 수리·도색,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점검 및 정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서비스센터를 단순 정비 공간에서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확장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앞서 2024년 부산 금정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를 가족 단위 고객까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했다. 향후에도 정비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공격적인 신차 출시 전략과 다양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지난 24일 아우디 공식 딜러 위본모터스의 분당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한 '인사이드 아우디 데이'에 참가한 고객들이 차체 도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한국앤컴퍼니, 이동 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장애인 지원기관 3곳에 300개 전달

한국앤컴퍼니가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나눔을 15년째 이어가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6일 대전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전북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지역 장애인 지원기관 3곳에 배터리 300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기관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이다.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1~2년으로 주행 거리와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만큼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한국앤컴퍼니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을 활용해 2012년부터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을 진행해 왔다. 올해까지 전달한 배터리는 4000여개다. /이승혁 기자 sh95@

인 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본부장 △어업혁신본부장 김채균

◆동행미디어 시대 ◇전입 △정치경제부 외교안보 전문기자 김귀근

부 음 ▲문장애씨 별세, 이길호(대원제약 향남공장 생산총괄 상무)씨 모친상 = 안양장례식장 VIP실(B1층), 발인 29일 오전 5시3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1-456-5555.

▲김충남씨 별세, 장희성(충북교육청 인사팀장)씨 장인상 = 27일 오전 5시39분, 청주 참사랑병원장례식장 목련 1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43-298-9200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스마트워치 심박수, 수치 믿어도 될까?



이 준 민 박사의
건강운동 가이드

같은 길을 비슷한 속도로 달렸는데 어제 심박수는 135, 오늘은 155다. 몸은 크게 힘들지 않은데 시계 숫자만 갑자기 치솟기도 한다. 이럴 때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걸까 아니면 시계가 잘못 잰 걸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그렇다면 손목 위의 심박수는 얼마나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떠오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동 강도를 살피는 데 유용하지만 한 번의 숫자를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 결과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스마트워치는 시계 뒷면의 빛을 이용해 손목을 지나는 혈류 변화를 감지하고 심박수를 계산한다. 병원에서 가슴에 전극을 붙여 측정하는 심전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움직임이 많거나 시계가 흔들리면 숫자가 실제 심박수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최근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측정 성능은 과거보다 개선됐다. 앉아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걷고 달릴 때는 비교적 잘 맞는 편이다. 그러나 팔을 많이 움직이거나 운동 강도가 갑자기 바뀌면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시계를 느슨하게 착용했거나 땀이 많이 난 경우 피부가 차가운 경우에도 측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제품과 운동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다.

같은 심박수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분당 140회는 감당할 만한 강도일 수 있지만, 운동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몇 마디를 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강도일 수 있다. 나이와 체력뿐 아니라 수면 부족, 더위, 카페인, 스트레스, 탈수와 복용 약물도 심박수에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의 숫자와 비교하기보다 그 순간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화면에 표시되는 '운동 강도 구간'도 정답표는 아니다. 많은 기기는 나이를 이용해 예상 최고심박수를 계산하고 운동 구간을 나눈다. 하지만 실제 최고심박수는 같은 나이에서도 사람마다 다르다. 최근 자주 들리는 'Zone 2'도 쉽게 말하면 숨이 약간 차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 강도를 뜻한다. 다만 시계에 표시된 경계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 테스트'다. 운동하면서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지만 노래하기는 어려운 정도라면 대체로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마디만 해도 숨을 크게 쉬어야 한다면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운동 중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거나 떨어졌다면 우선 속도를 낮추고 몸의 느낌을 확인하자. 시계가 손목에 제대로 밀착됐는지도 살펴본다. 몸은 편안하고 숫자도 잠시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일시적인 측정 오류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상한 수치가 반복되거나 두근거림, 흉통, 심한 어지럼증, 평소와 다른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난다면 시계 오류로 넘겨선 안 된다. 즉시 운동을 멈추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 운동할 때는 시계를 손목뼈보다 조금 위쪽에 흔들리지 않도록 착용한다. 기록을 확인할 때도 한 번 나타난 최고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비슷한 운동을 반복했을 때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심박수와 함께 숨이 얼마나 찼는지, 대화할 수 있었는지, 운동 후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지도 살펴보자. 비슷한 코스를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평소보다 심박수가 계속 높고 피로도 풀리지 않는다면 속도와 운동량을 낮춰 몸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움직였고 그때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데 있다. 숫자를 맹신할 필요도,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다. 손목 위의 숫자와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는 것. 그것이 스마트워치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포츠운동의학 박사·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외래교수

'하늘 위 시한폭탄' 금지도 고민해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보조배터리 하나가 수백 명의 승객을 공포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5일 홍콩에서 제주로 향하던 홍콩익스프레스 항공기에서는 좌석 아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가방에서 배터리를 꺼내던 50대 여성 승객은 왼손 엄지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36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배터리를 내열 격납 가방에 넣고 침수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지만, 비행 중 배터리 하나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 10일에는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이었지만 기내에 연기가 퍼지면서 승객 168명 전원이 대피했다. 주변 승객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륙 후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위험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항공기 내부가 불길에 휩싸여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 슬라이드로 대피했고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항공기 천장까지 불에 탈 정도로 피해가 커진 뒤에야 배터리 안전이 항공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배터리에서도 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가 시작되면 재발화할 수 있고, 밀폐된 객실에서 연기와 화염이 번지면 대피와 진압 모두 쉽지 않다. 물론 전면 금지는 승객 불편과 현실적인 운송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편의성이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사고가 날 때마다 승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조배터리 하나가 대형 참사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하늘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험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하늘 위 안전을 운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에 맡기기 보단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60년생**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72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좋습니다. **84년생** 시기가 좋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49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1년생**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이십니까? **73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85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50년생 기다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62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74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86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51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63년생** 건강은 건강할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75년생** 과음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뜻이 굳고 변함이 없다면 능히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2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4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88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세요.

53년생 교통수단을 조심하세요. **65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77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귀하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때를 만났으니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54년생 집밖에서 하는 일이 길합니다. **66년생**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기대도 안 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90년생**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5년생 추진중인 일은 대성과를 얻을것입니다. **67년생**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79년생** 서쪽에 귀하를 도울 귀인이 있습니다. **91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길을 나서세요.

56년생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68년생** 마음을 비우세요. **80년생** 늦바람을 조심하세요. **92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57년생 지난 실수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것입니다. **69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81년생** 배신수가 보입니다. **93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58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70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82년생** 백만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입니다. **94년생** 일찍 귀가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59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1년생** 마침내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3년생** 주변인들이 모두 돕습니다. **9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서서히 해결되겠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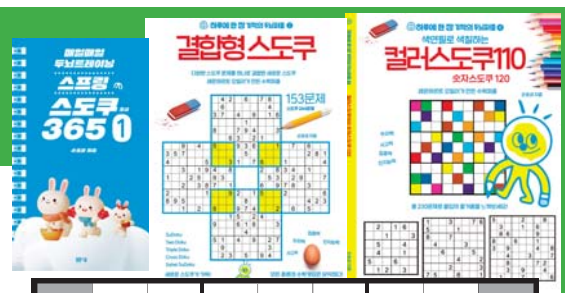
행복의 기준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에 행복의 정의를 내려놓은 경이 보인다. 4대 축복경에 속하는 길상경 또는 행복 경으로 번역되는 '망갈라숫따'가 그것이다. 행복 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부러워 마지 않는 신들조차 행복의 정의를 묻고 있다. 우리 중생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복들을 다 가진 것 같은 신들인데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에게 와서 예경을 올리며 묻고 있다. 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때에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따숲에 있는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었다. 어느 날 깊은 밤 한 천신이 제따숲을 두루 비추며 나타났다. 세존께 다가와서 인사를 한 다음 한 켠에 서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여쭈었다. "수많은 천신들과 인간 세상은 행복을 소망하고 축원하오니 최상의 행복한 삶을 설하여 주옵소서" 라며. 세존은 이렇게 답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훌륭한 사람을 공경함.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어라. 알맞은 곳에 살며 공덕을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 세워 사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어라. "부모와 친지들 어른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며 이웃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비난하지 않게 행동하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더라." 이렇게 대충 서른여덟 가지의 항목을 이르신다. 나중으로 가면 세속팔풍, 즉 이익과 손해, 비난과 칭찬, 명예와 악명, 즐거움과 괴로움 등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살며 많은 일을 만나도 슬픔이나 고통 없이 평온하며 어디서나 실패하지 않고 뜻하는 일마다 성취하리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위의 행복경 내용만 보더라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세간의 기준과도 합치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7					2	4
9					3		7	
				6			9	
	3							2
4							8	
	8			7				
	5		8					3
6	4					7		8

4	8				7		6	
				2	1			
6			7			9		
			6	1	2			
		3			9			8
			9	3				
	3		1				7	2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7	5	3	2	9	4	6
3	6	2	9	4	8	1	5	7
9	5	4	6	7	1	2	8	3
7	8	6	2	1	3	5	9	4
1	5	3	4	6	9	8	7	2
6	7	8	3	9	5	2	1	9
2	3	5	1	8	4	6	9	7
4	2	1	8	5	6	7	3	8

2	7	4	5	6	1	9	3	8
9	3	5	8	7	2	4	6	1
6	1	8	4	3	9	2	7	5
8	2	6	9	5	4	3	1	7
7	5	3	2	1	6	8	4	9
1	4	9	3	8	7	5	2	6
4	8	7	1	2	5	6	9	3
3	9	1	6	4	8	7	5	2
5	6	2	7	9	3	1	8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전국적 교권보호 시동… "교육청 현장개입·지원 뒷받침돼야"

교권보호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
수도권·부산 등 교권보호 부서 신설
교육청 개입 등 실질적 지원 필요해
외부 개입시 회복탄력성 저하 우려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드라마 '참교육'이 지핀 교권 보호 논의가 전국 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가 본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부산·인천·충남 등도 지원 조직과 인력을 늘렸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육청의 직접 개입 권한과 인력·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모아 교권 침해 사안 대응은 물론 저경력 교사와 장애 교원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다. 행정관리담당관에는 학교법률지원팀을 새로 두고, 교권 침해가 아닌 학교 법률 사안까지 지원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8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발대식을 열었다. 당초 5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1823명이 지원해 인원을 늘렸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 1대1로 지원한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지원 체계도 넓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마다 센터장, 변호사, 장학사 각 1명과 직원 2명 등 5명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변호사 선임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한다.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도 법률 자문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법률지원팀을 하나로 합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조직했다. 충남교육청은 9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18명)을 가동하며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갖췄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보호지원단을,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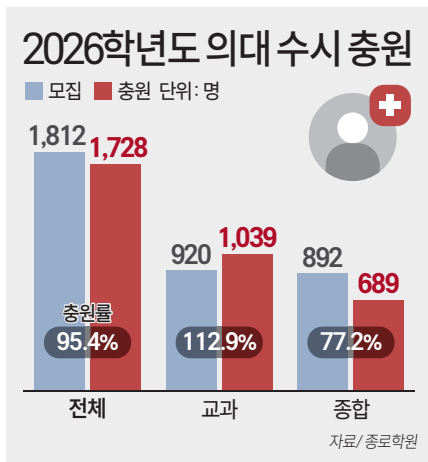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차원에서 책임지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조직 신설 자체보다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응 주체로 나서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종결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도 반복적인 수업 방해나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개입하고, 학교에 대응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현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경찰 등 외부 전담관이 투입되면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김영진 대표는 "특정 학부모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부모회 등을 통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교권보호전담관이 투입되면 공동체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교육이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의대 수시 충원 95.4%… 올해 이탈 더 는다

지난해 의대 수시 등록포기 1728명
중복합격으로 추가합격 도미노 현상
올해 지역의사제로 이탈 증가할 것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들의 연쇄 등록 포기로 인한 추가합격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인원을 웃도는 빈자리가 발생하는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이 같은 이탈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교과·종합전형 모집인원 1812명 중 합격자 등록 포기로 발생한 충원 인원은 1728명(95.4%)이다. 합격자는 평균 2.0개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에서 첫 합격자를 가려낸 뒤에도 모집인원에 맞먹는 규모의 추가 합격이 이뤄졌다.

최초 합격자가 다른 대학에 등록해 자리가 비면 예비 합격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수험생이 다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추가 충원이 이어진다. 한 차례의 등록 포기가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으로 번지면서 도미노처럼 합격자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권 의대 교과전형 전국선발의 충원율은 146.4%로 집계됐다. 지방권 19개 대학을 합산하면 222명 모집에 325명이 충원된 것이다. 이 전형 합격자는 평균 2.5개 대학에 중복합격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183.3%, 대구·경북 181.8%, 호남 177.8% 순이었다. 지역인재전형은 624명 모집에 607명이 충원돼 97.3%였으며, 이 가운데 강원이 115.8%로 가장 높았다.

올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제)이 처음 도입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가 이탈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합격 자리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31개 의대에서 488명을 뽑고, 이 가운데 458명(93.9%)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수시에서만 507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08대 1에 달했을 만큼 관심도 높다.

의무복무 조건도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전형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일반 의대나 지역인재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의 등록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정 기자

삼육대, 120주년 맞아 학사·캠퍼스 재구성

삼육대학교가 전공 간 경계를 없애는 학사 개편과 캠퍼스 공간 재구성 계획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교육을 전 학부로 확대하고, 지하 공간에 교육·문화 시설을 모으는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삼육대는 지난 23일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열고 'SU-RISE 미래캠퍼스' 비전을 발표했다.

제해종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AI 확산 등을 대학이 대응해야 할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학사 제도 및 캠퍼스 공간의 혁신을 제안했다.

캠퍼스 공간 개편안도 공개했다. 교육·문화 복합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는 '지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상은 차량 통행을 줄인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정 기자

호서대 '조기취업 학과' 취업·학위 동시에

호서대학교가 기업 현장에서 일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호서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사업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와 물류유통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함께 선발하고 채용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1학년 때 전공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부터 협약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이어간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3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학과별 교육 과정은 각 산업에 맞춰 구성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는 반도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수정 기자

서울 유치원 신입생 모집… 최대 3곳 지원

내달 2일 공·사립 신입생 추첨 모집

서울지역 공·사립유치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다음 달 시작된다. 신입생은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선발은 접수 마감 후 희망 순위를 반영한 자동 추첨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지역 공·사립유치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별 모집 요강은 28일부터 유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학부모는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고 희망 유치원에 지원하면 된다. 접수 현황과 추첨 결과도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3년생(3세), 2022년생(4세), 2021년생(5세) 유아다. 우선모집 원서는 다음 달 2~4일, 일반모집 원서는 17~23일 접수한다. 일반모집 이후 정원이 남은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추가모집을 시행한다.

지원 횟수는 신입생 최대 3곳, 재원생 최대 2곳으로, 지역이나 공·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 취약 유아와 쌍둥이,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도 유치원별 기준에 따라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발은 자동 추첨 방식이다. 학부모가 입력한 희망 순위를 반영해 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추첨한다. 우선모집 결과는 다음 달 9일, 일반모집 결과는 다음 달 26일 발표한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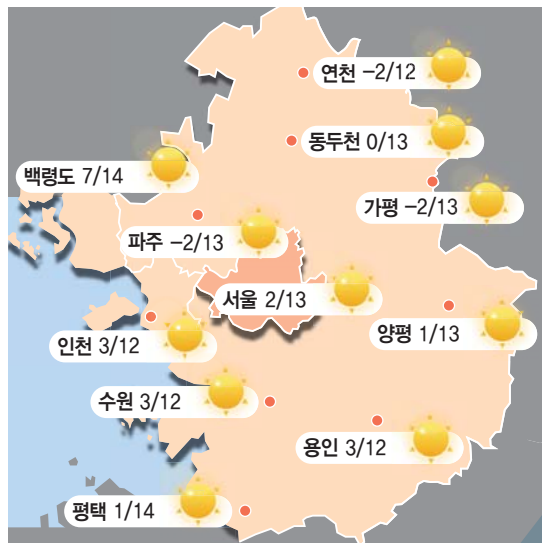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3 | 해짐 / 17:39

10월
28일(水)
음력 : 9월 18일

수도권 날씨
2 ~ 13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전 곧 종료될 것…과거 휴전은 시간낭비 불과"
▲우러전쟁 국지휴전 돌입…키이우 방면서는 교전 지속 /사진 뉴시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 "李 축하에 감사…조만간 만나길 기대"
▲트럼프 "부정선거 제보 시 100만달러"…'선거 불복' 포석 관측도

▲미·캐나다 무역합의 진전…중간선거 이전 합의 가능성도
▲이스라엘 총선 투표…네타냐후 재집권 여부에 관심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2호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면세업계 경험으로 관광객 잡는다 L1



바로팜 코스닥 상장 승부수 L2

30년 농정 내공에 AI 혁신 더해… K-축산 미래 이끈다

CEO 와칭

박 수 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데이터가 정책의 '지도'라면 그 정책을 완성하는 것은 '현장'이다. 기술에서 출발한 공공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닿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임직원 앞에서 밝힌 경영 철학이다.

축평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지능화 기관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산 유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제13대 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관,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농정 전반에 굵직한 뼈대를 세워온 정통 기획통이다. 공직에서 검증받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축평원의 체질을 AI 기반의 미래형 조직으로 바꿔 가고 있다.



박수진 원장 프로필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 학사
-미 하버드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장·한식세계화 추진팀장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농무관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현)제13대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지난 7월24일 ㈜삼세를 찾아 여름철 폭염·폭우 대응 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30년 농정경험 바탕 韓 축산 혁신 주도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전환' 이끌어

AI 축산물 품질평가 도입… 업무효율↑
이력관리·유통체계도 디지털화로 관리
도축장-경매장 원격 경매 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축산 설계… 가치소비 확산
현장 누비며 농가·소비자 중심 정책 펼쳐

◆데이터와 현장 잇는 30년 농정 전문가

행시 제40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정책 기획과 예산, 스마트농업 확산, 국제통상 등 농정 전반의 거시적 안목과 정밀한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로 꼽힌다.

박 원장의 공직 행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데이터와 현장의 선순환'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담당 국장으로 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검증 시스템을 전면 구축해 정책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스템은 이후 농식품부 주요 사업 관리체계의 표준 모델이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바 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철학은 현재 축평원 운영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중이다. 박 원장은 축평원이 보유한 축산물 품질·이력·유통 데이터를 민간과 정책 현장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농가에 실익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는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품질평가 데이터 활용→축산물 신뢰 극대화

그의 취임 후 축평원 내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축산물 품질평가 AI 전환과 데이터 활용'이다. 기존 축산물 등급 판정은 인력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과 고화질 영상 분석을 결합한 등급판정 시스템 및 장비를 구축했다. 신뢰도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

실제로 소 AI 평가 장비를 전국에 배치했다. 이로써 전체 품질평가 물량 중 AI 판정 비율을 2025년 9%에서 2026년 41%(51개소·150대)로 대폭 늘렸다.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과 양돈기업 도축장 15개소에서 전체 물량의 35%를 AI로 평가하고 있다. 계란도 연말까지 AI 판정 장비를 집하장(GP센터) 11개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AI 기반 품질평가는 업무 효율화는 물론, 농가 경영 전략을 바꾸고 맞춤형 유통을 선도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고 있다. 축평원은 축적된 AI 품질 데이터(근내지방비율, 등심 사진, 삼겹살 지방비율 등)를 농가에 제공해 사육과 출하시기 판단을 돕고 있다. 소 등심 사진과 연계한 도매거래를 지원하고 삼겹살 지방 비율에 따른 구분 유통까지 뒷받침한다. 'AI판정전환팀' 신설과 통합 관제시스템 도입 등 발 빠른 조직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축산유통 디지털 혁신 박차

축산물 이력관리와 유통 정보제공 체계도 디지털 기술을 입고 진화하고 있다. AI 영상 및 이미지를 활용해 농가가 더욱 편리하게 이력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데이터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별·점검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사육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 의심농가를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등 이력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박 원장은 다년간의 국제통상 협상과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근무 경험을 갖춘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 감각을 바탕으로 축산물 유통 구조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한 축산 유통 체계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다. 도축장과 경매장 간 실물 이동 없는 원격지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9월부터 실제 경매를 추진 중이다. 가축 출하 시 필요한 최대 11종의 서류를 자동 수집·제출하는 '전자출하 시스템'을 확대했다. 또 자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보유한 도축장 전체(23개소)에 전면 적용해, 농가와 도축장의 행정처리 시간을 47% 단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정확한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공표로 합리적인 소비와 정부의 수급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축평원은 축산물 가격과 재고, 유통구조 등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문제해결형 스마트축산 확산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시절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 체계와 저탄소 녹색축산 전략을 설계했다. 그의 전문성은 축평원의 정책 지원 사업에서 한층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축산업 현안 해결 중심으로 기관의 스마트축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솔루션 패키지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사육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넘게 낮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를 851호(한우·돼지·젖소)까지 늘렸다. 인증 돼지고기의 군·학교·기업 급식 공급과 백화점·마트 유통망 확대를 이끌어 가치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 원장은 올해 7월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AX로드맵'을 선포했다. 기관 경영 전반에 AI를 이식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행보다. 기관 내부적으로 AI 등 신기술 도입에 맞춘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했다. 또 기관 최우선 핵심 가치인 '안전' 경영 체계를 세우고, 내실 있는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국현장 누비는 '발품 행정'

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밀착형 소통'과 '정책 고객 중심의 업무 전환'을 주문하고 솔선수범에 나섰다. 세종 본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10개 지원을 비롯해 전국 도축장, 축산 농가 등 현장을 매월 수시로 찾으며 발품 행정을 펼쳐 왔다.

임직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당부한 대목이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제도의 기획은 생산자인 농가, 유통 현장의 관계자, 그리고 최종소비자인 국민 등 '정책 고객'의 눈높이와 수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 편의적인 단속이나 단순 수집 중심의 업무 방식을 버리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론이다.

축평원은 축산유통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독보적인 축산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30년 농정 경험에서 나온 정교한 데이터 행정과 현장 중심의 끊임없는 소통은 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의 리더십 하에, 축평원이 바꿔 나갈 축산 유통 생태계와 새로 그리는 K-축산의 미래에 세간의 기대가 모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지난달 16일 세종 본원에서 'AI 윤리원칙 및 AX 추진 전략체계 선포식'을 갖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NC, 두산 방출 손아섭에 입단 제안… 답변 기다릴 것
▲밀워키 브루어스, 월드 시리즈 3차전서 대승… 창단 첫 우승까지 '1승' /사진 뉴시스
▲사우디, 정세 불안에도 '아시안컵 강행' 예고… AFC 일정 발표
▲모레노, 오는 29일 A매치 명단 발표…23명 안팎 축소 전망
▲뮌헨 김민재, 부상 회복해 개인훈련 복귀…11월 평가전 출전 기대도
▲오늘 서울 제외 전국 한파주의보…전국 곳곳서 출근길 '영하권'